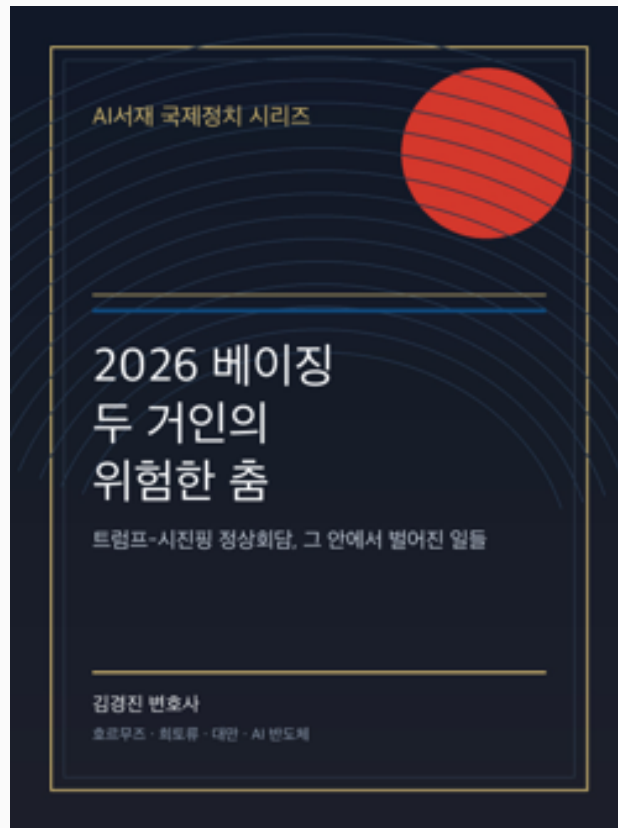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목차와 서론, 13장, 맺음말



김경진 변호사

Korean PDF edition

2026 베이징: 두 거인의 위험한 춤

김경진 변호사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호르무즈, 희토류, 대만, 보잉, 대두, AI 칩이라는 장면으로 따라갑니다. 서론, 13장, 맺음말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계산서를 읽습니다.

목차

제1장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위기, 중국의 기회

서론 베이징의 48시간을 읽는 법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제3장 목을 조르는 손, 주기율표 위의 전쟁

제4장 인민대회당의 21발 예포와 환영식

제5장 천단, 하늘의 제단 위에 선 두 사람

제6장 침묵의 방문단

제7장 물과 불 사이의 2,300만 명

제8장 호르무즈 해협의 밀약과 중국의 역할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제10장 AI 패권 경쟁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제12장 각자의 시간 벌기와 교차하는 통고문

제13장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시험대

맺음말 두 거인의 위험한 춤은 계속된다

제1장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위기, 중국의 기회

이전 장

서론: 베이징의 48시간을 읽는 법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동상이몽의 협상안

인용 출처: A. 백악관 발표문, 미 중부사령부(CENTCOM), 미 재무부 / B. 중국 외교부, 신화통신, 환구시보(Global Times) / C. Al Jazeera,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 D. 연합뉴스, 국립외교원, 매일경제 / E. BBC, NHK, Bloomberg Asia

만선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 멈춰 선 VLCC 유조선들 사이로, 중국 국영 코스코 소속 선박 열척만이 이란군의 검문을 통과해 빠져나간다.

2026년 4월 마지막 주, 페르시아만 동쪽 입구.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십 척이 닻을 내린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만선 상태로 출항했다가 해협 봉쇄에 걸린 배들이었습니다. 갑판 위로 4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피어올랐고, 선원들은 며칠째 본국 해운사의 운항 재개 통보를 기다렸습니다.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운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매기는 위험 프리미엄이 열 배 넘게 뛰었고, 로이즈 보험시장은 해협 진입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유조선 행렬 사이로 움직이는 배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COSCO) 소속, 유니펙(UNIPEC)이 임대한

위안화후(Yuan Huahu)

호. 이 배를 포함해 열 척 남짓한 중국 초대형 유조선들만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궤적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수백 척이 묶여 있는 바다에서 중국 배만 빠져나간 겁니다. 이

선택적 통행 허가

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란 고위 인사들 사이의 막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6년 5월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하기 직전 벌어진 이 장면 하나가, 이번 정상회담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 표면적 목표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와 핵 시설, 미사일 기지 타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란의 석유를 틀어쥐어 중국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공급망을 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란이 중국에 보내는 원유를 차단하면 중국의 에너지 취약점을 찌를 수 있고, 그것이 대만과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으로 몇 주 안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의 교훈을 잊은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한 건지. 어느 쪽이든 오판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공습에도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는 대신, 비대칭 전술을 택했습니다. 세계 석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겁니다.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고속정,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노리는 드론 떼(Swarm), 해협 곳곳에 뿌린 기뢰. 이란의 목표는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운 보험사들이 짊어질 위험 프리미엄을 폭등시켜 상선들이 스스로 해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박 항로를 돌렸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 물동량은 전쟁 전 대비 5%에서 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나비효과는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4월경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11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 평균보다 46달러 오른 수치입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105달러 선을 위협했고, 브렌트유는 장중 107달러에서 108달러를 오갔습니다.

유가 폭등의 충격파가 퍼져 나간 경로는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화물 운송비가 먼저 뛰었습니다. 아시아발 컨테이너선 운임이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올랐고, 해상 보험료는 그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비료,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파생 상품의 공급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면 포장재 가격이 오르고, 그것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로 돌아오는 연쇄. 디젤 연료와 항공유 부족 사태가 북미와 유럽 전역의 공항과 물류망을 강타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는 화물기 운항이 20% 줄었고, 일본 나리타공항에서는 항공유 절약을 위해 장거리 노선의 연료 적재량을 줄이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맹방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즉각 타격을 입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한국, 대만은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EU는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중이었는데, 중동산 원유 공급까지 끊기면서 이중 타격을 맞았습니다. BBC는 이 사태를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최악의 에너지 충격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곧바로 미국 내 물가 폭등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1위 산유국 이고 에너지 독립국이니 중동 분쟁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절반 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정유사들은 세계 시장의 높은 유가 덕분에 기록적 수익을 올리고 주가 가 상승했습니다. 그 청구서는 미국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5달러에서 6달러를 넘었습니다. 수년 내 최고치였습니다. 2월과 3월 사이에만 휘발유 가격이 15.6%, 일부 지표로는 21% 폭등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다시 반등해 전년 동기 대비 근원 CPI가 3.8%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한 달 만에 1.4% 올라 4년 내 최고치를 찍었고, 이는 에너지 가격 하나에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 전반, 핵심 상품과 서비스 곳곳으로 인플레이션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치솟는 물가는 연준을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불안(Inflation Angst)

에 휩싸여 요동쳤고, 미국 10년물 및 30년물 국채 금리가 5% 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투매가 벌어졌습니다. 2026년 말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환상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고 금리 장기화, 어쩌면 추가 인상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연준은 에너지발 공급망 충격 앞에서 금 리 인상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굳어지는 걸 막으려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떠 안았고, 주택 대출 금리 상승과 식료품 가격 폭등에 짓눌린 서민들의 실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오히 려 0.5% 하락했습니다. 구매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과 생활비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 로 내세웠던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1%에서 35%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역사적 최 저치 경신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식료품 배급소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생필품과 가스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한 배급소에서 ABC 뉴스가 취재한 여성은

휘발유를 넣으면 식료품을 못 사고, 식료품을 사면 출근길 기름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미국 전역에서 쏟아졌습니다.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개전 두 달여 만에 이미 2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전쟁 명분에 대한 회의론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전쟁

이라고 공격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전쟁의 출구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미국인의 재정 상황은 나의 군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큰소리를 쳤지만, 백악관 참모들과 의회는 유가 하락 없이는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공포 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유류세 유예(Gas Tax Holiday) 법안을 만지작거렸으나, 전

쟁을 끝내지 않는 한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었습니다.

Bloomberg Asia는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는 법은 알았지만 끝내는 법은 몰랐다

고 평했습니다.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는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 신화를 시험대에 올렸고,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자신이 그토록 비난해 왔던 시진핑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배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유가를 잡으려면, 이란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 위기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바꿔 놓고 있던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혈맹이자 이란산 원유의 세계 최대 구매자입니다.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와 해상 봉쇄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도,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 60%에서 80%, 일부 추산으로는 90% 이상을 끌어 담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일 약 138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이른바

유령 함대(Ghost Fleet)

입니다. 화물 추적 시스템의 트랜스폰더(AIS)를 끄거나 위치를 조작한 유조선들이 공해상에서 원유를 옮겨 싣고 중국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Al Jazeera는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말레이시아 동안 해상에서 적어도 30척 이상의 유조선이 환적 작업을 벌이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들은 적재 화물의 원산지를

말레이시아산

또는

인도네시아산

으로 위장한 채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거래가 돈을 주고받는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란은 대중국 원유 수출 대금 전액을 100% 인민폐(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국제 금융 제재망을 완전히 우회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1,800억 위안

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올렸고, 중국은 제재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팔 곳이 있으니 버틸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싸게 사니 남는 장사인 셈이죠.

이 저렴한 이란산 원유를 집중적으로 소비한 건 중국 산둥성 일대에 밀집한 독립 민간 정유사들, 이른바

티팟(Teapot)

정유사들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와 재무부는 이들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중국 상무부는

제21호령

이라는 국내 보호 조치를 즉각 발동했습니다. 미국의 역외 관할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국 기업이 미국 제재를 따르지 못하도록 법적 방패를 세운 겁니다. 이란의 석유 생명선을 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조력은 원유 구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 거래 뒤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 기업과 연계 기관들은 제3국을 경유하는 조개껍데기 회사(Shell company)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에 위성 이미지 데이터, 드론 부품, 미사일 부품 등

이중 용도(Dual-use)

기술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두바이, 이스탄불,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무역 회사들이 중간 경유지 역할을 했고, 화물 서류에는

산업용 전자 부품

또는

통신 장비

로 기재됐습니다.

이 공급 경로의 실체가 드러난 건 호르무즈 해협에서였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대함 순항 미사일이 중국제

CM-302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101발이 발사됐습니다. CENTCOM(미 중부사령부)은 회수된 미사일 잔해에서 중국 국방 산업 계열 기업의 부품 일련번호를 식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미국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에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미사일 유도 칩부터 무인기 통신 장비까지, 중국산 부품 공급 없이 이란이 세계 최강 미 해군을 상대로 두 달 넘게 정밀 타격전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환구시보(Global Times)는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상업 거래를 정치화하는 미국의 태도야말로 문제

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화통신은 CM-302 관련 보도를 일절 신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주장

이라는 한 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신은 호르무즈 봉쇄의 피해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중국이야말로 최대 피해자가 됐어야 합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되는 원유가 전체 수입량의 50%에 달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이 사태를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전쟁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고 매일 100만 배럴 이상의 잉여 원유를 비축했습니다. 2026년 초 기준 전략 비축유(SPR)가 약 14억 배럴, 수입량 기준으로 약 4개월치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 등 공급원을 다각화했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가속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멧집을 키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중국이 위기를 역이용한 방식이 눈에 띕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일본, 한국, 대만 등 경쟁국들의 공장 가동이 위협받고 있을 때, 중국은 풍부한 재고를 바탕으로 원유를 되팔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나라는 공장을 멈추고, 어떤 나라는 지정학적 횡재를 누리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94%입니다. 중동산 원유 비중은 전체 수입의 70%를 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들이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나섰지만, 대체 물량 확보에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원유 도입 단가는 치솟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도 급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산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데, 나프타 가격이 뛰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가격이 따라 오르고, 그것이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케이스, 의약품 포장재, 농업용 필름까지 파고듭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일부 공정이 원료 수급 차질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매일경제는

호르무즈 봉쇄 한 달,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한국의 물류비와 교통비를 끌어올렸고, 그것은 다시 식료품 가격과 서비스 물가에 전이됐습니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를 돌파할 기세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내버려 두면 인플레이션이 고착됩니다. 미국 연준이 처한 곤경과 판박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와

전략적 자율성

을 내세우며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른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통화스와프 포함)을, 중국에는 실질 협력 확대를 당부하는 식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동맹의 카드를, 다른 쪽에서는 경제의 카드를 들어 보인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고 의문을 제기했고, 장동혁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의 신뢰를 소모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접근법이 효과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수로 하나가 막히는 것만으로 한국의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 에너지 안보는 추상적 정책 논의가 아니라 정유소 가동률과 주유소 기름값에 곧바로 연결되는 현실이었습니다. NHK는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위기에서 중국과 같은 완충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직격탄을 맞았다

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서 벌어진 코스코 유조선의

선택적 통행

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보낸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수백 척이 묶여 있는 바다에서 중국 배만 빠져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에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몸을 싣고 베이징으로 향할 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무역 적자도, 대만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배럴당 117달러짜리 기름값, 3.8% CPI, 31%대 지지율, 290억 달

러자리 전쟁 비용 청구서. 이 숫자들이었습니다. 유가를 잡으려면 호르무즈가 열려야 하고, 호르무즈가 열리려면 이란이 움직여야 하고, 이란이 움직이려면 이란의 최대 고객이자 무기 공급자인 중국이 나서야 합니다. 이 연쇄의 끝에 시진핑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좁은 해협 하나가 막히자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실상 도움을 청하러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말의 허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물리적으로 원유를 자급할 수 있다는 것과, 글로벌 원유 가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보면 풍경이 다릅니다. 시진핑은 14억 배럴의 비축유와 위안화 결제 네트워크, 유령 함대, 이란과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쥐고 회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위기가 오히려 중국의 협상 카드를 키워 준 셈이죠. 전쟁을 일으킨 쪽은 미국인데,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쪽은 중국이라는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처지가 마냥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내수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청년 실업률. 시진핑의 테이블 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2025년 중국 GDP 성장률은 목표치를 밑돌았고,恒大(Evergrande) 사태 이후 이어진 부동산 침체는 지방정부 세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청년(16세에서 24세)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15%를 넘었고, 실질 체감은 그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14억 배럴의 비축유도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4개월치라고 했지만, 그건 현재 수입량 기준이고 비축유 방출이 시작되면 소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원유만으로 세계 2위 경제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파이프라인의 수송 용량은 하루 약 160만 배럴인데, 중국의 일일 원유 수입량은 1,000만 배럴을 넘습니다. 이란에 대한 지원이 미국과의 전면 대결로 번지는 것은 시진핑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한, 미국과의 전면 충돌은 자살 행위이거든요.

중국은 유리한 패를 쥐고 있었지만, 그 패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유리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누가 보증합니까.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이란이 해협을 열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란은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 변수인지. 중국이 이란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란이 중국의 원유 구매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도 이란의 석유 공급에 의존하는 상호 묶임인지.

CM-302 미사일 101발이 호르무즈에서 미 해군을 향해 날아간 이상, 미국 의회와 여론이 중국을

대리전 상대

로 규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리전 상대

에게 유가를 잡아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모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순을 어떻게 관리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켜 이란과 그 이란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미국 사이에서 어떤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이 재명 정부의

사안별 연대

라는 말이 호르무즈 위기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중동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호르무즈의 빗장을 여는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건지. 한국가 스공사의 LNG 도입가 급등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소비자 가스요금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정부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 건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연합뉴스는 5월 12일 보도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동 외 원유 도입선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고 전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한 연구원은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미중 관계의 함수라는 점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하던 2026년 5월,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는 여전히 유조선 수십 척이 닻을 내린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은 해협 입구를 순찰하고 있었고, 기뢰가 수거됐다는 확인은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장

서론: 베이징의 48시간을 읽는 법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동상이몽의 협상안

서론 베이징의 48시간을 읽는 법

서론: 베이징의 48시간을 읽는 법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2026년 5월, 베이징의 하늘은 맑았고 인민대회당 앞 붉은 카펫은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보잉 500대, 대두 2,500만 톤, 관세 12개월 유예. 시진핑 주석은 시간을 들고 나왔습니다. 희토류 허가권, 대만 문제의 침묵, 이란을 향한 좁지만 분명한 영향력. 두 사람은 같은 회담장에 앉았지만 서로 다른 계산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의 장면과 쟁점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원자료에는 백악관 통고문, 중국 외교부 발표, 신화통신과 해외 언론 보도, 국내외 연구기관 분석, 시장 반응과 한국 관련 평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자료를 장면 중심으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뛰고, 미국의 물가와 중간선거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이란산 원유, 위안화 결제, 유령 함대,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손에 쥐었습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으로 향한 이유는 무역 적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서 시간을 번 중국 지도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 책의 관심은 승패 판정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환하게 웃었는지보다, 무엇이 거래됐고 무엇이 빠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백악관의 짧은 통고문에는 대만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긴 발표문에는 대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잉과 대두는 숫자로 발표됐지만, 납기와 선적 일정은 흐릿했습니다. AI 칩은 기대를 모았지만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자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정유소와 석유화학 단지가 흔들립니다. 희토류 허가제가 강화되면 배터리와 전기차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대만 해협이 불안해지면 반도체와 해상 물류가 동시에 긴장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남의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의 원가표와 외교의 선택지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후의 장들은 한 장면씩 따라갑니다. 유조선이 멈춘 바다, 폭스바겐 공장의 멈춘 라인, 인민대회당의 예포, 천단공원의 회랑, 백악관 통고문 174단어, 에어포스원 안의 12점 발언. 그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2026년 베이징 회담이 왜 이름 붙이기 어려운 시간인지 조금씩 보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동상이몽의 협상안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장면: 트럼프가 17인 CEO 군단을 시진핑에게 한 명씩 소개하는 인민대회당 만찬장, 양쪽 통역관의 속기 속도가 달랐다.

인용 출처: A. 백악관 readout, 트루스 소셜, USTR 브리핑 B. 중국 외교부 영문 readout, 신화통신, 인민일보 C. Foreign Policy, CEPA D. 세종연구소, 연합뉴스, 최은주 E. Bloomberg Asia, 닷케이

인민대회당 2층 연회홀, 원탁 위에 붉은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저녁 7시 42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를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통역관 두 명의 펜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측 통역관은 트럼프의 과장된 형용사를 쳐내느라 바빴고, 중국 측 통역관은 시진핑이 끄덕인 횟수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두 17명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팀 쿡(애플), 젠슨 황(엔비디아), 데이비드 솔로몬(골드만삭스), 브라이언 사이크스(카길). 트럼프는 한 명씩 이름을 불렀고, 시진핑은 한 명씩 악수를 건넸습니다. 외교가 아니라 쇼룸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팔 수 있는 것들의 카탈로그가 인민대회당 원탁 위에 펼쳐진 셈이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다섯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잉(Boeing), 소고기(Beef), 대두(Beans),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머리글자를 따면 5B. 11월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이 채 안 됐고, 그는 유권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계약 금액, 수출 톤수, 일자리 창출 건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세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 3T. 그에게 6개월은 의미 없는 단위였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달력은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뻗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잉, 500대의 기대와 200대의 현실

트럼프가 첫 번째로 꺼낸 카드는 보잉이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때 중국은 보잉 항공기 300대, 약 37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9년 전 일입니다. 그 사이에 무역전쟁이 터졌고, 코로나19가 왔고, 737 맥스 추락 사고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보잉 주문을 멈추고 에어버스로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회담에서 500대 계약을 점쳤습니다. 보잉의 신임 CEO 오트버그가 대표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카고 본사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737 맥스와 광동체 기종을 합쳐 500대. 숫자가 그럴듯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발표된 숫자는 200대였습니다.

보잉 주가가 4.1%에서 5% 사이를 오가며 떨어졌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Bloomberg 터미널에는

Beijing underdelivers

헤드라인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대단한 거래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을 본 기자들은 대단하다는 말의 온도가 평소보다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200대라는 숫자를 뜯어보면 중국의 계산법이 드러납니다. 2045년까지 중국에 필요한 신규 여객기는 약 9,000대로 추산됩니다. 200대는 그 수요의 2.2%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에게 기자회견에서

보잉 딜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체면은 만들어주되, 월스트리트가 환호할 만한 숫자(500대)는 내주지 않은 겁니다. 밸브의 손잡이는 베이징이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잉 CEO 오트버그가 귀국 비행기 안에서 기자단에게 한 말이 그 구조를 요약합니다.

미국 정부의 정치적 지원 없이는 중국에서 대규모 주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잉의 중국 사업은 항공기의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라 두 나라 정상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숫자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기체의 MRO(정비, 수리, 개조) 사업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보잉 동체 부품을 납품합니다. 보잉의 중국 판매가 줄면 글로벌 생산 물량이 줄고, 한국 협력업체의 수주 파이프라인에 직격탄이 됩니다. 200대와 500대의 차이, 그 300대의 간극 안에 부평과 사천의 항공 부품 공장 가동률이 들어 있습니다.

대두, 무너진 팜벨트와 브라질의 그림자

두 번째 B는 대두(Beans)였습니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국 중서부 팜벨트는 트럼프의 심장부입니다. 2016년에도, 2020년에도, 2024년에도 이 지역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역전쟁의 보복 관세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끊으면서 이 심장부가 멈춰버렸

습니다. 미국 대두의 중국 수출액이 51%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입니다.

빈자리를 채운 건 브라질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브라질은 중국에 8,000만 톤 이상의 대두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시장을 남미가 꿰찬 겁니다. 한번 뒤집힌 공급망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브라질 농가는 중국 수요에 맞춰 경작지를 늘렸고, 물류 인프라를 깔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럼프는 카길의 브라이언 사이크스를 대동하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 톤의 대두를 포함해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에서도 약속했고, 2019년 오사카에서도 약속했고, 2025년 부산에서도 약속했습니다. 실제 이행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약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미국 농가의 좌절감이었고, 트럼프는 이번에는

구매(Purchase)

라는 동사의 시제를 미래형에서 현재형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소고기(Beef)는 대두의 쌍둥이 같은 카드였습니다. 14개월 전 중국은 보복 조치로 수백 곳에 달하는 미국 소고기 도축장과 가공 공장의 수입 허가(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막힌 겁니다.

회담 기간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여러 미국 소고기 공장의 수입 허가를

유효

로 갱신했습니다. 미국 농업계가 환호하려는 순간, 몇 시간 뒤 그 허가 상태가 다시

보류

로 바뀌었습니다. 켜다 껐다. 중국이 라이선스라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시위였습니다. 호의를 베풀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그 스위치의 소유권이 베이징에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의 눈앞에서 보여준 거죠.

트럼프는 그래도

내가 중국 시장을 다시 열었다

고 말할 재료는 확보했습니다. 라이선스가 깜빡이는 동안에도 카메라는

갱신됨(Active)

상태를 찍었으니까요. 유권자에게 보여줄 스크린샷 한 장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 새로운 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B는 제도(institution)였습니다.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는 트럼프 1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전면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00% 관세를 매기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고, 미국 기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기 행정부는

관리형 무역(Managed Trade)

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AI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품목은 철저히 막되, 소비재, 농산물, 의류기기, 항공기 같은 비민감 상품(non-sensitive goods)은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약 300억 달러 규모(합계 6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제로 작동하면 트럼프는 자신이 부과했던 고율 관세의 부작용(미국 내 물가 상승)을 완화하면서, 양국 무역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도 막는 가드레일을 얻게 됩니다.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작품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전방위로 차단했습니다. 베센트의 구상은 달랐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비전략 분야에 한해 CFIUS 심사를 건너뛸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BYD나 CATL 같은 중국 제조 기업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트럼프의 5B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국가 안보(기술 통제)와 경제 실익(농산물, 항공기, 투자 유치)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보잉 200대, 대두 2,500만 톤, 소고기 라이선스, 300억 달러 무역위원회, CFIUS 패스트트랙. 이 다섯 줄짜리 청구서를 들고 11월에 유권자 앞에 서겠다. 그것이 트럼프가 베이징에 온 이유였습니다.

시진핑의 시계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11월을 보고 있을 때 시진핑은 2049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국 100주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의 시간표에서 6개월짜리 중간선거는 한 눈깜짝에 지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진핑이 회담 테이블에서 지키려 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 3T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체는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대만은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전문을 공개한 발언입니다.

대만 문제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은 물과 불처럼 서로 융합할 수 없다(水火不容).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중미 양국은 충돌하고 대립하게 될 것이며, 관계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외교 수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상태였고,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패키지가 백악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탄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의 61%, 사드(THAAD) 미사일의 80%가 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

만을 방어할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기를 팔겠다는 건 약속만 잔뜩 쓴 수표였습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대만 정책의 언어를 바꾸려 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does not support)

고 해왔습니다. 중국은 이 표현을

반대한다(opposes)

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의 차이. 하지만 그 한 단어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프레임 전환이었습니다.

회담은 2시간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난 뒤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문(readout)은 174단어였습니다. 경제와 마약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Taiwan)

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74단어짜리 문서에서 대만이 빠졌다는 건, 트럼프가 시진핑의 경고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공개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닐 수 있지만,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타이베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를 메뉴판(menu)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메뉴판이라는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대만은 전략 자산이 아니라 거래 테이블 위의 품목,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무언가로 보일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타이베이의 외교부 건물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관세(Tariffs)는 시진핑의 두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에 100%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숫자가 워낙 극단적이라 허풍으로 들렸지만,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희토류 417kg이 들어갑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는 2,359kg. 중국이 2025년 4월과 10월, 안보를 이유로 주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선언하자 미국 군수산업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도 흔들렸습니다.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 GDP 중 약 1.2조 달러에 해당하는 산업이 중국산 희토류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전쟁 14개월 만에 미국의 경제 손실은 약 4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부품이 모자라고, 납기가 밀렸습니다. 100% 관세라는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를 때린 겁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 충격을 버텨낸 건 즉흥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부터 준비한 쌍순환(Dual Circulation, 循)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수 중심 경제와 핵심 기술 국산화를 5년에 걸쳐 밀어붙인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자국 중심 생태계를 깔아놓은 상

태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것이니, 충격 흡수 여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전면 디커플링을 포기하고, 2025년 부산 무역 휴전(Busan Truce)을 연장하는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상호 300억 달러 규모의 점진적 관세 인하. 시진핑은 관세 전선에서 한 발도 뒤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기술(Technology)은 3T 중에서 열기가 제일 높은 전장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합류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는 회사의 수장이 베이징행 비행기에 탔다는 건, 미국 기업조차 약 1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AI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 매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인물들은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칩 한 장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회담장 안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칩을 틀어쥐고 있는 동안 중국 쪽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딥시크(DeepSeek)라는 중국 AI 기업이 약 600만 달러의 비용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작업을 600만 달러로 해낸 겁니다. 숫자의 격차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제가 심해질수록 중국의 자체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역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중국은 창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10개 중국 기업에 기업당 최대 75,000개의 H200 칩 구매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문제였을 수 있고, 이미 독자 생태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술 패권 경쟁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좌표

서울에서 이 회담을 지켜보는 시각은 워싱턴이나 베이징과 달랐습니다.

반도체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중국 내 팹(fabrication plant) 가동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호재입니다. 반면, 미국의 압박 덕분에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

, 중국이 미국에서 못 사는 것을 한국에서 사던 구조가 줄어들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같은 카드 앞뒷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실제로 작동하면 BYD나 CATL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미국 시장에서 쌓아온 선점 우위가 위협받습니다. 희토류 12개월 유예는 한국 양극재 업체(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에게 숨 쉴 시간을 주었지만, 12개월 뒤에는 다시 질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

전략적 자율성

,

사안별 연대

라는 키워드가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5월 13일, 회담 하루 전.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1시간 간격으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마지막 실무 협상을 마쳤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전 협의의 무대가 된 겁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에 이어 두 번째.

이것을 외교 성과로만 읽으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무대

로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 서면 조명을 받지만, 무대 장치는 무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명의 각도와 밝기는 배우가 조절합니다. 한국은 무대인가, 연출자인가, 관객인가. 세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전 협의 장소가 됐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활용당할 수 있다는 뜻

이라고 지적했고, 장동혁 의원은

실용 외교의 성과를 보여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비판은 정당했습니다. 무대가 된 것과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5B와 3T의 교차점에서

두 강대국의 청구서를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는 6개월 안에 숫자를 원했습니다. 보잉 200대, 대두 2,500만 톤, 소고기 라이선스, 300억 달러 무역 틀, CFIUS 패스트트랙. 모두 달러와 톤과 대(臺)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시진핑은 시간을 원했습니다. 대만에서 미국의 발을 묶고, 관세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기술 자립의 시간을 버는 것. 그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부정문(否定文)으로 측정됩니다. 대만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지 않았다. H200 수출 규제를 철폐하지 않았다. 100% 관세를 실행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시진핑의 승리 목록이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양쪽 모두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은 협상

이라고 평했습니다. CEPA는 이 회담을

구조적 갈등의 일시 정지 버튼

이라고 불렀습니다.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거래는 있었지만 화해는 없었다

고 썼습니다.

세종연구소의 분석은 한국 독자에게 직접적이었습니다. 5B와 3T가 다음 회담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는 질문에

12개월짜리 시한폭탄 여덟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

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5B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겹치는
항목(보잉 MRO,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을 식별하고, 3T 안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리스크(대만
유사시, 희토류 통제, AI 칩 공급망)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닛케이는 이 회담을

제일 비싼 만찬

이라고 불렀습니다. Bloomberg Asia는

트럼프가 들고 온 청구서의 절반만 정산된 저녁

이라고 썼습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보잉 200대의 인도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두 2,500만 톤 약속의 이행률이 과거처럼 절반
에 그칠 가능성을 누가 감시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소고기 라이선스는 깜빡이고 있습니다. 무역위
원회와 투자위원회는 아직 기구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만이라는 단어가 174단어짜리 백악관 발표문에서 빠진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방에 있던 소수뿐
입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와

반대한다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는지, 넓어졌는지. H200 칩 75,000개의 조건부 승인을 중국이 거절한 진짜
이유가 조건 때문인지, 자신감 때문인지.

딥시크가 600만 달러로 만든 AI 모델이 미국의 수십억 달러짜리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미국의 칩 통제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통제해봤자 소용없다면, 통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인민대회당 원탁 위에 펼쳐졌던 17명의 명함. 그 명함 한 장 한 장에 적힌 숫자들, 기대와 실망의 차이, 약속과 이행의 간극. 그것들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하나씩 현실이 되거나 증발할 겁니다. 어떤 숫자가 살아남고 어떤 숫자가 사라질지, 5월 14일 저녁 그 원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3장 목을 조르는 손, 주기율표 위의 전쟁

이전 장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동상이몽의 협상안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공장의 생산 라인 정지

인용 출처: 미 상무부, 미 국방부(DLA), 중국 상무부 제61호 공고, 신화통신, 환구시보, CEPA, Foreign Policy, FT, Bloomberg, 닛케이, 세종연구소, 최은주(국립외교원)

인용 출처

2025년 4월 15일 아침, 독일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사 공장의 ID.4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춰 섰습니다. 로봇 팔은 차체 위에 걸린 채 정지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쯤 조립된 차량 서른두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립 중단 사유는 엔진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니었습니다.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 그 자석 안에 극미량 들어가는 디스프로슘이라는 원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동쪽으로 8,000킬로미터. 바로 전날인 4월 14일,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6개 단락짜리 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위협적인 문장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관료적 건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디스프로슘, 터븀, 홀뮴,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가돌리늄. 7개 중희토류 원소와 파생 화합물에 대해 즉시 수출 허가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신문 1면보다 이 6개 단락이 세계 경제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도화선은 열하루 전에 놓였습니다.

2025년 4월 3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가속화된 자원 정렬(Accelerated Resource Alignment)

이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자금을 캐나다 퀘벡과 래브라도의 희토류 광산에 투입하되, 생산량의 60% 이상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오타와에서 터져 나왔지만, 워싱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반구에서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조급함이 외교적 예의를 밀어냈습니다.

베이징은 이 움직임을 수년간 추적해 왔습니다. 정확히 11일 만의 반격이었습니다. 반격의 형태가 이채로웠습니다.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라

고 한 겁니다. 금지가 아니라 허가.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면 금지는 WTO 제소 대상이 됩니다. 허가제는 합법적 행정 절차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석 달째 검토 중이라며 묵혀둘 수도 있습니다. 공급을 끊지 않으면서 공급의 속도와 방향을 쥐는 것. 그게 베이징이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칠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고, WTO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5년 만에 베이징은 같은 무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는 법을 배운 겁니다. 금지가 아니라 허가. 차단이 아니라 지연. 법적으로 흠잡기 어려운 형태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뉴욕 금융시장이 개장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RTX).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 방산과 기술 기업들의 시가 총액 470억 달러(약 63조 원)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미래의 예측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허가

권한을 쥐게 됨으로써 당장 발생할 계약 지연, 납기 초과, 비용 폭등을 시장이 즉각 가격에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포탄 한 발 쏘지 않고 63조 원을 날려 보낸 겁니다.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 앉아 있던 방산 애널리스트들이 그날 밤 계산한 숫자입니다.

7개 원소는 무작위로 골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골든 스크류(Golden Screws).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멈추는 나사라는 뜻입니다.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영구 자석이 고온에서 자성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원소입니다. 전기 모터, 풍력 터빈, 미사일 유도 자이로스코프. 이 자석이 없으면 미사일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트륨은 레이더 시스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제트 엔진 터빈 블레이드의 고온 세라믹 코팅에 쓰입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전투기는 눈을 잃습니다.

미국에 채굴 시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한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지였습니다. 문제는 채굴 다음 단계에 있었습니다. 분리, 정제, 가공. 이 인프라를 지난 30년 동안 비용을 좇아 중국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2025년 시점에서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가공 능력의 80에서 90%를,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의 93%를 쥐고 있었습니다. 광석은 있어도 그걸 무기와 모터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과 시설은 중국 밖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현실을 말해줍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 희토류 417킬로그램.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4,173킬로그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 2,359킬로그램.

그런데 미 국방부 산하 국방병참국(DLA)의 비축량은 이랬습니다. 디스프로슘 14개월 치. 터븀 11개월 치. 홀뮴 8개월 치 미만. 스칸듐 5개월 치. 중국의 허가 지연으로 공급이 11영업일만 밀려도 록히드 마틴의 텍사스 포트워스 F-35 생산 라인에서는 액추에이터 부품 조달이 끊겨 매년 9대에서 18

대의 전투기 인도가 지연됩니다. 위약금이 쌓입니다. 포드 자동차도 자석 부족으로 익스플로러 SUV 생산 라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스칸듐 5개월. 이 숫자 앞에서 워싱턴의 선택지는 좁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베이징이 두 번째 손을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 제61호 공고. 홀뮴, 에르븀, 툴륨, 유로퓸, 이테르븀. 5개 원소가 추가됐습니다.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17개 희토류 원소 가운데 12개가 이제 중국의 수출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품목 수가 늘어난 것보다 더 무서운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외법권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의 도입이었습니다.

미국이 타국을 제재할 때 써먹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중국이 복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그 안에 중국산 희토류 재료나 기술이 가치 기준 0.1%만 포함돼 있으면, 그 제품을 어디로 수출하든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1%입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공장. 일본 전자 부품 공장. 미국 방산 기업. 중국산 희토류 파우더나 자석 원료가 극미량이라도 섞여 있으면 베이징의 도장이 없이는 제품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외국 군사 조직에 제품이 공급될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자동 거부(Automatic Denial)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생산 라인을 직접 인질로 잡은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방산 기업까지 묶어 버린 겁니다.

2025년 4월에는 허가제로 속도를 통제했습니다. 10월에는 치외법권으로 공간을 통제했습니다. 속도와 공간. 둘 다 쥔 쪽이 이깁니다.

CEPA(유럽정책분석센터)는 이 조치를

European Jitters(유럽의 전율)

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자기 공급망 안에 중국산 희토류가 몇 퍼센트나 섞여 있는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전자 장비에 쓰이는 자석 원료를 긴급 감사했고, 프랑스 탈레스는 레이더 시스템 부품의 원산지 추적에 두 달을 써야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희토류 자석 대체재 연구에 비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닛케이는 도요타의 희토류 의존도를 집중 보도하면서

광석이 아니라 기술이 인질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0.1%라는 미량이 글로벌 제조업 전체를 묶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제61호 공고의 진짜 위력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이름의 부메랑

트럼프의 무기는 관세였습니다. 중국이 주기율표를 쥐고 흔들자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양쪽의 관세 보복이 꼭대기에 도달한 시점의 숫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 145%.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긴 보복 관세, 125%. 145 대 125. 무역의 숨통을 양쪽에서 조르는 형국이었습니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이랬습니니다. 이 관세 폭격으로 중국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되돌린다(Reshoring). 그러나 부메랑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니다.

중국산 제품에 매겨진 고율 관세 비용의 90% 이상이 중국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수입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에게 넘어갔습니니다. 미국 가정의 연간 추가 생활비 부담이 1,200달러에서 1,500달러(약 160만 원에서 200만 원)로 불어났습니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3%로 치솟으면서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박살 냈습니니다.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뛰는 와중에 관세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습니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1월 중간선거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건 이 이중 타격 때문이었습니니다.

농업 지대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끊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렸습니니다.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액이 51% 반토막 났습니니다.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의 농가가 파산했습니니다.

팜벨트(Farm Belt)

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니다. 관세 폭탄이 자기 유권자를 맞힌 셈입니니다.

이 모순이 결국 트럼프를 베이징으로 끌고 갔습니니다. 중국에 전면 디커플링을 선언해 놓고, 시진핑을 만나 보잉 200대와 대두 2,500만 톤(연간)을 사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상황. FT는 이를

자기 발등을 찌른 관세 전쟁의 필연적 귀결

이라고 묘사했습니니다.

그 사이 중국의 흑자는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니다.

관세가 높아질수록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조립 공장을 세웠습니니다. 미국의 관세망을 우회(Routing Flexibility)한 겁니다. 선전에서 만든 부품이 호치민시에서

베트남산

으로 포장되어 미국에 들어갔습니니다. 미국 세관이 원산지를 추적하려 해도, 3국을 경유한 부품의 실제 출발점을 가려내는 건 모래사장에서 특정 모래알을 찾는 것과 비슷했습니니다. 브릭스(BRICS)와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을 늘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격은 중국을 고립시키기는커녕 제3국을 경유한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도만 키웠습니니다. 쌍순환(Dual Circulation)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이 2020년부터 준비해 온 우회 경제 체제가 관세 전쟁이라는 실전에서 작동한 겁니다.

정상회담 직전, 중국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니다.

중국 상무부가 제21호 령(Order No. 21)을 발동했습니다. 차단법(Blocking Statute)입니다. 중국 영토 안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다국적 기업 포함)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을 전면 불법화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산둥성

티팟(Teapot)

정유사들을 2차 제재 명단에 올렸을 때, 이들과 거래를 끊으려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있다면 중국 상무부가 처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애플, 테슬라, 씨티은행. 이 기업들의 CEO가 상하이 사무실에 앉아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 법을 따를 것인가. 중국 법을 따를 것인가. 둘 다 따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충돌 관할권(Conflict of Jurisdiction)

이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이 기업들은 중국 내 데이터, 공급망, IT 시스템을 글로벌 본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평행 우주

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를

하나의 기업, 두 개의 운영 체계

라고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 안에

경제방위단(Deal Team 6)

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3년간 2,000억 달러를 쏟아 중국 배제 독자 공급망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의 배터리와 희토류 대체망 완성.

전문가들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이 30년에 걸쳐 완성한 생태계를 5년 안에 재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Almost Impossible).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 자석으로 만드는 전 과정,

Mine-to-Magnet

을 서방에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쓸 무기 부품조차 구할 수 없는 미국에 10년짜리 계획은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윈난성에서 47만 톤 규모의 희토류 광상이 발견됐습니다. 추산 가치 80조 달러. 신화통신이 보도한 이 숫자 앞에서

서방 독자 공급망

이라는 구호는 한 번 더 공허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기
에 47만 톤이 더 없어진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자원 패권의 시계가 중국 쪽으로 수십 년 더 돌아간 셈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2개 원소 수출 통제와 0.1% 치외법권 규정은 한국 산업에 직격탄이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는 양극재 원료를 중국산 희토류 화합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의 배터리 양극재 조달 경로가 흔들렸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생산 라
인에서 쓰이는 구동 모터의 영구 자석에도 디스프로슘이 들어갑니다. 0.1%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에
서 만든 배터리와 모터를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도 베이징의 허가가 필요해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최은주 교수는 이 상황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누리던 대체 수요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 덕분에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대안 공급처

로 부상했지만, 희토류 원료 자체가 중국에 묶여 있으면 그 지위는 허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회담에서 합의된 12개월 유예는 숨통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유예는 해결이 아닙니다. 시한이 붙은
안도일 뿐입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시장
점유율, 2차전지 양극재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조선과 원자력에서의 경쟁력. 이런 카드들이 미
중 양쪽에 대한 협상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원재료가 중국산 희토류에 묶여 있다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12개월 뒤 통제가 재개되면 한국 자동차와 전
자 산업은 2025년 10월의 충격을 다시 맞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전면적 100% 관세 부과와 완전한 디커플링. 이 두 가지 비현실적 목표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그 대
신 베이징 회담에서

무역 위원회(Board of Trade)

와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

라는 새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관리형 무역(Managed Trade)이라는 이름의 후퇴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son Greer)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비민감 분야에 한해 관세를 완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양국 각각 약 300억 달러, 총 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내리는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트럼프가

무역전쟁의 승리

를 선언하기 위해 중국의 보잉기 200대와 연간 2,500만 톤의 대두 구매라는 영수증을 받아 챙긴 대가로, 자신이 먼저 걸어 잠근 관세의 자물쇠를 스스로 푼 겁니다. 중국의 3대 레드라인, 대만과 관세와 기술 통제 가운데

관세 공격

이라는 카드를 트럼프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했다

고 논평했습니다. 과장이 섞인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공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맞물려 중국 내수 시장은 위축됐고, 부동산 침체는 지방정부 재정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베이징으로 초대한 데는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신감만이 아니라, 대미 무역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도 작용했습니다. 1조 달러 흑자라는 숫자 뒤에는 내수 부진이라는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난성 47만 톤 광상의 가치는 8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Mine-to-Magnet 독자 공급망 구축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DLA의 스칸듐 비축량은 5개월 치입니다. 12개월 유예는 2026년 가을에 만료됩니다.

12개월 뒤 베이징이 다시 주기율표를 펼치면, 워싱턴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그때도 양극재를 조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미국 1차 자료: 미 상무부 BIS 수출통제 규정, 미 국방부 국방병참국(DLA) 비축량 자료, 백악관 NSC 내부 문건

Accelerated Resource Alignment

, USTR 제이미슨 그리어 기자 브리핑 B. 중국 1차 자료: 중국 상무부 2025년 4월 14일 수출통제 통지문, 중국 상무부 제61호 공고(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 제21호령(Order No. 21), 신

화통신 원난성 희토류 광상 보도, 환구시보 논평 C. 제3국 분석: CEPA

European Jitters

보고서, Foreign Policy 미중 공급망 분석 D. 한국 분석: 세종연구소 희토류 패권 분석, 최은주(국립외교원) 미중 공급망 연구 E. 국제 미디어: FT 관세 전쟁 분석, Bloomberg 방산주 시총 변동 데이터, 닛케이 도요타 희토류 의존도 보도

이전 장

제2장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동상이몽의 협상안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4장 인민대회당의 21발 예포와 환영식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텐안먼 광장 상공에 첫 번째 포성이 울린 오전 10시 7분, 트럼프는 두 눈을 감았다

인용 출처: 백악관 발표문(2026.5.14), 트럼프 만찬 연설 전문(트루스 소셜), 신화통신 보도(2026.5.14), CCTV 생중계 화면 캡처, 중국 외교부 영문 readout, Foreign Policy 분석("Xi's Grand Protocol", 2026.5.15), Al Jazeera 베이징 특파원 르포, 국립외교원 이슈브리프(2026년 5호), 연합뉴스 베이징 발 현장 보도, BBC 아시아 에디션("Pomp and Power", 2026.5.14), NHK 국제부 분석("미중 의례 외교의 새 지형", 2026.5.15)

인용 출처 목록

첫 번째 포성은 오전 10시 7분에 울렸습니다. 텐안먼 광장의 동쪽 끝, 인민대회당 앞마당에 서 있던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소리는 가슴팍을 한 대 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성이 이어지자 광장 위를 날던 비둘기 떼가 일제히 서쪽으로 꺾어 날았습니다. 열한 번째 포성쯤에 연합뉴스의 한 기자는 사열대 위의 트럼프를 망원렌즈로 잡았는데, 그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뭔가에 도취된 사람의 표정이었다고 나중에 기사에 썼습니다. 스물한 번째 포성이 끝났을 때 광장에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21발의 예포는 국제 외교 관례에서 타국 원수에게 표하는 최고 등급의 예우입니다. 국가마다 포 수를 달리하여 격을 조절하거든요. 그날 베이징이 쏘아 올린 21발은 숫자 자체로는 관례를 따른 것이지만, 그것을 둘러싼 무대의 규모와 밀도는 관례를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는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베이징이 펼쳐놓은 장면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경, 눈부시게 맑은 하늘 아래로 대통령 전용 차량 비스트(The Beast)를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창안제(長安街)를 미끄러지듯 통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내 핵심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미국에서 공수해 온 전파 교란 장비와 위성 통신 장비를 실은 이 강철 요새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인민대회당 동문(東門) 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트럼프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계단 아래까지 직접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시진핑이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때 시진핑은 자금성 입구에서 트럼프를 맞았는데, 그때도 계단 아래까지 내려온 것이 화제였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같은 연출이 반복된 겁니다. 국빈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주인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이것은 중국 의전에서 상대방의 격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장치입니다.

두 사람의 넥타이 색을 볼까요. 트럼프는 자신의 상징인 짙은 남색 정장에 선명한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시진핑 역시 짙은 푸른색 정장에 버건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당시에는 트럼프가 붉은색, 시진핑이 푸른색 넥타이를 매며 시각적 대비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동색계(同色系)로 맞춘 셈이죠. BBC 아시아 에디션은 이것을

극단적 대립의 온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협력의 이미지를 발신하려는 중국 의전팀의 세밀한 시각적 연출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14초 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트럼프는 왼손으로 시진핑의 팔을 토닥이며 사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장대, 116보의 메시지

예포가 끝나고 붉은 카펫 위로 인민해방군 3군(육, 해, 공군) 의장대의 분열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시죠. 총 151명. 1분에 정확히 116보. 한 걸음당 정확히 75cm. 남녀 군인이 섞인 이 거대한 방진이 내뿜는 군화 소리는, 현장에 있던 Al Jazeera 특파원의 표현을 빌리면

단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들렸다

고 합니다. 수백 개의 군화가 동시에 바닥을 치며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파열음. 그것은 시각적 장관을 넘어서 소리로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극도의 규율, 극도의 통제력,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물리적 힘을 미국 대통령의 눈과 귀 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장면을 최전열에서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국방장관이 직접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NHK 국제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 수뇌부를 향해, 중국이 흔들림 없는 군사적 위엄을 무언의 압박으로 들이민 것 이라고요. 헤그세스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의장대 사열 내내 양손을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현장 기자의 메모가 남아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삼엄한 장면은 곧바로 뒤집어집니다. 의장대가 마지막 대열을 지나간 직후, 불과 30초도 안 되는 간격이었습니다.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붉은 카펫의 끝자락으로 이동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밝고 화려한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양손에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들고, 인조 꽃다발을 흔들며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맑고 높은 목소리로

환영, 열렬히 환영(Welcome, warm welcome)

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군대 행렬 직후에 아이들의 환호.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삼엄함에서 순수함으로, 경직에서 열광으로,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Foreign Policy의 분석 기사

Xi's Grand Protocol

은 이 전환을

한 편의 오페라에서 1막의 긴장을 2막의 서정으로 풀어내는 것과 같은 극적 장치

라고 썼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점프하며 환호하는 모습에서 북한의 집단체조를 연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출의 유일한 표적이었던 트럼프의 반응은 베이징의 계산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쇼 비즈니스와 리얼리티 TV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압도적 규모의 찬양 앞에서 그는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엄숙한 의장대 앞에서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트럼프는 아이들의 환호성을 듣자마자 만면에 함박웃음을 지었고, 박수를 치며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의 고양된 상태는 이어진 비공개 회담과 국민 만찬의 공식 연설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마주 본 자리에서 미리 준비된 외교적 문장을 던져버리고 즉흥적인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the children were incredible).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영식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이 발언을 읽으면서 국립외교원의 한 연구원은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의전의 ‘무엇’에 감탄하고 있었지, ‘왜’를 묻지 않았다.

이 거대한 무대 장치에는 조연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등 뒤에 도열한 미국 기업인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위해 팀 쿡(애플), 일론 머스크(테슬라), 젠슨 황(엔비디아) 등 미국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CEO 16~17명을 직접 대동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장에서 시진핑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기업인들을 모셔 왔습니다. 저는 2인자나 3인자는 원하지 않았고 오직 최고(Top)만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당신과 중국에 존의(Pay respects)를 표하고 무역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발언이 만들어낸 그림을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핵심 자본가들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앞에 나아가 비즈니스 기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의를 표하러 왔다(Pay respects)

는 표현은 영어에서 경의를 나타내지만, 중국어 자막에서는

致敬(zhìjīng)

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에는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올리는 예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과 기술 통제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붉은 카펫 위에서 자국의 부호들을 과시하며 중국 시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베이징은 이 광경 전체를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인민일보 1면에는 다음 날 트럼프가 CEO들을 소개하는 사진이 실렸고, 그 사진 속 트럼프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수사학, 질문의 형태를 띤 선언

화려했던 실외 환영 의식이 끝나고 인민대회당 동대청(東大廳)의 문이 닫혔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침묵을 깬 것은 시진핑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무역 적자도, 관세율도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중미 양국은 과연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투키디데스 함정. 하버드대학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가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하며 만든 개념입니다.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여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발생한 역사상 16번의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는 구조적 비관론이죠. 시진핑은 왜 공개 외교 무대에서 이 불길한 서양의 학술 용어를 꺼내 들었을까요.

신화통신의 보도문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시진핑은 질문의 형태를 빌렸지만 실제로는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나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기존 패권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것을 미국 대통령의 면전에서 기정사실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할 의지와 지혜가 있다

는 평화의 외피를 둘렀습니다. Foreign Policy는 이것을

수사적 유도(Rhetorical Judo)

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힘을 빌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넘기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트럼프가 보잉기 몇 대를 팔 것인지 따지고 있을 때, 시진핑은 자신을 인류의 운명과 세계 평화를 설계하는 규칙 제정자(Rule-maker)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회담의 격이 중국의 페이스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포장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덕담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시진핑은 곧바로 이렇게 이었습니다.

5,000년이 넘는 중화 문명의 깊은 토대 위에 발을 딛고 있는 14억 중국 인민은... 그리고 건국 250주년을 맞은 3억의 미국 인민은...

한 문장 안에서 미국은 250년 역사의 젊은 나라로 축소되었고, 중국은 5,000년 문명을 축적한 유구한 제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CCTV의 자막은 이 대비를 화면 양쪽에 나란히 배치했는데, 5,000년대 250년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구도였습니다. 시진핑은 극진히 정중한 언어로 미국을 칭찬하면서도, 지정학적 무게감과 역사적 깊이에서 중국이 미국 위에 있음을 교묘하게 훈시한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제국 시절 주변 조공국에 썼던 이른바 어른의 화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과감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시진핑은 양국의 핵심 슬로건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Make America Great Again)은 완전히 병행할 수 있으며, 서로의 성취를 도우며 세계에 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미국 강경파들이 중국의 부흥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핵심 정치 구호(MAGA)를 존중해 주는 듯 보이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명분 자체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Al Jazeera의 베이징 특파원은 이 장면을 보며 이런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언어를 빌려서 트럼프의 논리를 뒤집었다. 이것은 외교적 유도(judo)에 가깝다.

화룡점정은 파트너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이자

the most consequential threat

, 즉 최대 위협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중미 양국은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 다칩니다(則俱傷).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반드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合則兩利, 則俱傷. 합하면 양쪽이 이롭고, 싸우면 양쪽이 다친다. 중국 외교에서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이 구절을 시진핑은 트럼프의 눈을 보며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틀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통고문(readout)에 명시된 이 개념은 네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협력 위주의 적극적 안정. 둘째, 경쟁에 한계를 두는 양성 안정. 셋째, 이견을 통제하는 상태 안정. 넷째, 평화를 기약하는 영구 안정. 이 네 기둥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안정

이라는 단어를 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 미국이 마음대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도록 양국 관계를

안정

이라는 족쇄로 묶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남중국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 수사학의 행간을 읽었을까요.

읽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말하고, 5,000년 문명을 말하고,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4대 기둥을 제시하는 동안, 트럼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긴밀하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전화를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이었습니다. 브로맨스 과시였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이자 가장 큰 기업의 CEO 3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업인 명단 자랑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말한 CEO 수는

30명

이었는데, 동행한 CEO는 16~17명으로 확인됩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트럼프의 오랜 습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입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보잉기를 몇 대 팔고 대두를 얼마나 수출할 것인가 하는 단기적 거래(Transaction)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설계한 거대한 질서의 틀, 패권의 동등함 인정과 전략적 포위망의 구축이라는 그물에 자신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5월 13일, 트럼프의 베이징 도착 하루 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핑이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시간 간격으로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마지막 실무협상을 마치고 각각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처음 만난 이후, 한국이 양 강대국의 사전 협의 무대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

전략적 자율성

,

사안별 연대

라는 키워드의 1년차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외교적 성과로만 읽으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무대로 쓰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의전 무대를 제공하는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베센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언급했고, 허리핑은 실질 경제 협력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양쪽에서 다른 카드를 받아 든 셈인데, 그것이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인지 좁히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인민대회당의 21발 예포가 한국 정상에게는 몇 발이었는지 비교해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중국이 보여준 의전과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 방중 때의 의전을 나란히 놓으면, 한국이 이 거대한 의례 외교의 지형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위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의례의 격이 아니라 실질의 결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민대회당 앞마당의 예포와 의장대와 아이들의 환호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성향을 정밀하게 해부한 무대였습니다. 화려한 찬사에 약하고, 거시적 원칙보다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상인의 기질. 시진핑은 그 기질을 겨냥하여 최대치의 대접으로 체면을 세워주었고, 그 대가로 이어지는 밀실 협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취해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시진핑은 이미 다음 수순을 놓고 있었습니다.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라는 이름의 새로운 질서. 그 질서 안에서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릴 수 없고,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

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의례의 격상이 실질의 진전과 비례하는가. 21발의 예포와 151명의 의장대와 수백 명 아이들의 환호로 포장된 이 장면이, 12개월 유예 합의 이후의 현실에서도 같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가. 시진핑이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의 4대 기둥이 실제로 양국 관계의 골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베이징의 봄바람처럼 계절이 바뀌면 사라지는 수사에 그칠 것인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 백악관 공식 발표문(2026.5.14), 트럼프 대통령 만찬 연설 전문(트루스 소셜 게시물, 2026.5.14) B. 신화통신

近平同美特朗普行

(2026.5.14), CCTV 정상회담 생중계 화면, 중국 외교부 영문 readout

Xi Jinping Holds Talks with US President Trump

(2026.5.14), 인민일보 1면 보도(2026.5.15) C. Foreign Policy

Xi's Grand Protocol: How Beijing Staged the Summit

(2026.5.15), Al Jazeera 베이징 특파원 현장 르포(2026.5.14) D. 국립외교원 이슈브리프 제 2026-5호

2026 미중 정상회담 의전 분석

, 연합뉴스 베이징발 현장 보도(2026.5.14) E. BBC Asia Edition

Pomp and Power: What Xi's Welcome Tells Us

(2026.5.14), NHK 국제부 분석

米中儀外交の新たな地形

(2026.5.15)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5장 천단, 하늘의 제단 위에 선 두 사람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장면: 2026년 5월 14일 오후, 천단공원 기년전 앞에서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중국 측 경호 인력이 무장 반입을 놓고 30분간 대치하는 장면.

인용 출처:

- A. 백악관/미 국무부 (트럼프 발언, 의전 일정 공개)
- B. 신화통신,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시진핑 발언, 천단 공원 폐쇄 보도)
- C. Foreign Policy, Lowy Institute (대국 외교 무대 장치 분석)
- D. 국립외교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한국 외교 분석)
- E. BBC, Financial Times, NHK (의전 비교 분석)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여섯 명이 기년전(祈年殿) 방향 회랑에서 걸음을 멈춘 건 오후 3시 12분쯤이었습니다. 허리춤에 권총을 찬 채 천단 핵심 구역으로 진입하려 하자, 중국 측 경호 인력 열두 명이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양쪽 다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에 손을 올린 미국 요원과,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는 중국 요원 사이로 30분이 흘렀습니다.

CNN 마이크 발레리오 기자가 현장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그 30분 동안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미 회랑 끝에서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무기를 해제하는 동안,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진 대통령은 무방비 상태로 중국의 심장부를 걸었습니다.

이 해프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인 2017년 11월, 트럼프가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시진핑이 고른 무대는 자금성이었습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외국 원수 부부를 위해 자금성 전체를 폐쇄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직접 가이드를 자처했고, 트럼프 부부는 붉은 벽과 황금빛 기와 아래서 도취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금성은 세속적 황제의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황제가 기거하던 곳. 물리적인 부가 집중된 세속의 정점. 2017년의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가 출신 대통령을 달래야 했고, 트럼프 개인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래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궁궐 안쪽 끝까지 열어준 것은 그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시진핑은 트럼프를 자금성이 아닌 천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동선의 변경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단공원은 명나라 영락제 시기인 1406년부터 1420년 사이에 건립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273만 평방미터. 자금성의 네 배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양대 왕조에 걸쳐 역대 황제들이 매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祭天)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던 곳입니다. 관광지가 아닙니다. 박물관도 아닙니다. 중국 문명에서 통치권의 기원 그 자체였습니다.

기년전(祈年殿)과 환구단(丘壇). 이 두 건축물은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는 중국의 전통 우주관을 건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기년전의 삼중 처마 원형 지붕은 하늘을, 환구단의 사각 기단은 땅을 나타냅니다. 이 구조 안에서 황제는 스스로를 천자(天子), 하늘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이곳에 올라 하늘과 직접 소통하며 통치의 정당성, 즉 천명(天命, Mandate of Heaven)을 부여받고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성에서 천단으로의 이동을 BBC 베이징 특파원은

세속 권력에서 신성 권위로의 격상(from secular power to divine authority)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은 트럼프에게 황제의 물질적 부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에는 황제의 우주적 권위를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 차이는 9년간 미중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2017년의 중국은 수세적이었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무기를 쥐고 미국을 압박하는 쪽이었습니다. 9년간 미국의 제재와 디커플링 시도를 견뎌냈고,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두 번 연속 자금성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진핑이 원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공간. 천명이 내려오는 제단. 그곳에 미국 대통령을 세워두는 것.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당국은 273만 평방미터의 천단공원 전체를 일반 대중에게 폐쇄했습니다. 텅 빈 거대한 신성한 공간으로 트럼프를 이끌고 들어간 시진핑의 의도는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역사 250년. 천단의 기년전 앞에 서 있는 건물의 나이 600년.

시진핑은 그 앞에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경호국 무장 해제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전 베이징 특파원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는 이 사건을

조공(朝貢) 의식의 현대적 재현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제천(祭天) 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에서는 절대적인 위계질서가 적용되었습니다. 무장(武將)은 칼을 차고 제단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武將帶刀不上朝). 그 어떤 세속의 무력도 하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이 600년 된 규칙을 2026년 5월 14일 오후에 부활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근접 경호원들이 무기를 해제하거나 출입을 통제당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물리적 힘(Hard Power)이 천자만이 오를 수 있던 공간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아이타 아키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변방의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던 만방내조(萬邦來朝)의 연출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CEO 17명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구하러 온 미국 대통령을 제단 아래 세워둔 풍경. 상징적 위계에서 미국을 제압하는 무대 장치가 거기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천단이 담고 있는 철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인합일(天人合一). 하늘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사상입니다.

시진핑은 인민대회당 회담에서

중미 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뛰어넘어 협력해야 하며, 싸우면 둘 다 다치고(則俱傷) 협력하면 둘 다 이롭다(合則兩利)

고 말했습니다. 직후에 트럼프를 천단으로 데려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공존하자

는 압박을 공간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자금성의 닫힌 벽은 밀실 거래를 연상시킵니다. 하늘이 열린 천단은 다릅니다. 시진핑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라는 프레임을 트럼프의 의식 속에 심기에 최적이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국제 대립 속에서

조화(Harmony)와 안정(Stability)

을 설파하려는 중국 외교부의 수사학과 이 공간은 빈틈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Foreign Policy는 이 장면을 두고

시진핑은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이 아닌 제단 위로 끌어올려 대화의 차원 자체를 바꿔버렸다

고 분석했습니다.

차원이 바뀐 건 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은 거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잉 항공기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미국산 대두와 소고기 수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떻게 해결해 11월 중간선거 악재를 방어할 것인가. 철저히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장부

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그 장부를 덮어버렸습니다.

100년 만의 대변국(百年變局)을 언급하며,

중미 양국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하며, 세계에 안정성을 주입해야 한다

고 선언했습니다(신화통신 2026.5.14). 역사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歷史之問 世界之問 人民之問). 양국 정상이 대국으로서 공동의 답안지를 써야 한다고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대두와 보잉을 논하는 상대에게, 80억 인류의 운명 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와 천하의 평화를 들이민 겁니다.

훈계에 가까웠습니다. 천단을 배경으로 시진핑은 미국이 유일 패권국이 아니며, 동방의 대국과 세계의 운명을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기정사실로 만들었습니다.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은 떠오르고 서양은 쇠퇴한다.

천단 방문은 이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영적 중심점에 선 트럼프는, 이란 전쟁의 늪에 빠져 탄약이 고갈되고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제국의 수장을 상징했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14억 인구나 군사력, 희토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막후 레버리지까지 모두 쥔 채 여유롭게

평화와 안정

을 논하는 동방의 현자로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이번 정상회담을 분석하며

중국은 더 이상 서방을 추격하는 문명으로 스스로를 묘사하지 않으며, 서방을 곧 뛰어넘을 슈퍼파워로 자리매김했다

고 쓴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에서 중국(中國)은

세상의 중심(Middle Kingdom)

을 뜻합니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궁궐이 불타고 약탈당했던 백 년의 국치(Century of Humiliation)를 겪은 나라가, 2026년 천단 위에서 서방의 최고 권력자를 불러들여 자신들이 다시 세계의 중심 지위로 복귀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장면은 관전 포인트가 아닙니다. 좌표입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위치는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미 동맹의 자동 발동 여부, 주한미군 전용 가능성. 국립외교원 박원곤 교수는

천단 의전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문명적 우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와

전략적 자율성

을 내세워왔습니다. 미국에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통화스와프 협력을, 중국에는 실질 협력 확대를 당부하며 양쪽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천단에서 벌어진 이 상징적 권력 이동이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히는 건지 좁히는 건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한국 정상에게는 천단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 중국이 내놓은 무대는 인민대회당 동쪽 회의실이었습니다. 환영만찬은 있었지만 역사적 공간을 함께 걷는 의전은 없었습니다. 600년 된 제단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만 열렸습니다.

이것이 의전의 정치학이고, 한국이 서 있는 위치의 현실입니다.

Lowy Institute의 아시아 파워 인덱스 수석연구원 수잔나 파튼(Susannah Patton)은 이번 천단 방문에 대해 “무대 장치가 아무리 정교해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대만, AI 패권, 남중국해. 이 모든 뇌관은 기년전의 600년 된 기둥 아래에서도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천인합일을 연출해도,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 오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대두와 보잉과 중간선거 숫자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무대 장치는 무엇을 바꾼 걸까요.

FT 베이징 뷰로의 분석이 하나의 실마리를 줍니다.

천단은 미국에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 14억 중국 인민에게 보낸 메시지다.

CCTV와 인민일보는 두 정상이 천단을 걷는 장면을 연일 반복 보도했습니다. 동승서강의 시각적 증거로. 백 년의 국치를 씻은 복귀의 증거로. 시진핑이 천명을 갱신한 현대의 천자라는 서사의 증거로.

무대 장치의 진짜 관객은 트럼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두 정상이 천단을 떠날 때, 무장을 해제당했던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다시 권총을 되찾았습니다. 30분 동안 빼앗겼다 돌려받은 무기. 외교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양측의 전팀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BBC는 이 장면을 두고

양측 모두에게 없었던 일(a non-event for both sides)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같은 날 저녁 사설에서

천단의 하늘 아래, 진정한 대국의 격(格)이 무엇인지 세계가 보았다

고 썼습니다.

한쪽은 없었던 일이라 했고, 다른 쪽은 세계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600년 된 제단 위에서 벌어진 30분의 대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양국의 해석은 지금도 갈라져 있습니다. 2026년 9월로 잠정 합의된 시진핑의 워싱턴 답방에서, 미국은 어떤 무대를 내놓을까요. 링컨 기념관의 계단인지, 알링턴 국립묘지의 묘비 앞인지, 아니면 아예 백악관 집무실의 좁은 책상 앞인지. 그 선택이 이번 천단 연출에 대한 미국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천단의 기년전은 동승서강의 증거인지 정교한 무대 장치에 불과한 건지 확정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6장 침묵의 방문단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장면: 2026년 5월 14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군사기지. 에어포스원이 급유를 위해 멈춘 사이, 검은 가죽 재킷에 배낭 하나만 멘 젠슨 황이 전세기에서 내려 트랩을 오른다.

인용 출처:

A. 백악관 기자회견 발언(트럼프), 트루스 소셜

B. 신화통신, 환구시보

C. Foreign Policy, CEPA, Lowy Institute

D. 연합뉴스, 세종연구소

E. Bloomberg Asia, Financial Times, 닷케이

앵커리지의 활주로 위에 5월의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급유를 위해 멈춘 상태였고, 이미 기내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미국 재계의 최정상급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오전, 하늘에서 소형 전세기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의 남자가 배낭 하나만 걸치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시가총액 6조 달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기업의 수장이, 여행 가방 하나 없이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올랐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공식 방중단 명단에 없었습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 수장의 제외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

라고 보도했고, 시장의 비관론이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에어포스원이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중에 트럼프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류하라(You're coming with us).

외교 관례 같은 건 깨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젠슨 황이 급유 시간에 맞춰 앵커리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이 방중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계획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즉흥과 계산이 뒤섞인, 트럼프식 거래의 전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 왔습니다. 전 세계 상위 30대 기업에 물었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기업의 2인자나 3인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최고

(Top)만을 원했고, 그들이 오늘 당신과 중국에 경의를 표하고 무역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칭송이었습니다. 속에는 다른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등 뒤에 미국의 경제적 파워가 서 있다, 이들과 거래하고 싶다면 내 조건을 받아들여라.

17명. 이 숫자가 품은 무게를 말해야 합니다. 17개 기업의 상장 시가총액을 합치면 16조 7천억 달러. 한화로 약 536조 원입니다. 여기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비상장 기업과 블랙스톤,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규모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전체 GDP와 맞먹거나 이를 넘는 규모. 미국 연방 정부 1년 예산의 세 배. 인류 역사상 채굴된 모든 금을 사들일 수 있는 돈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걸어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는 이 자본 권력을 협상 도구로 가져왔습니다. 수행원이 아니라 무기로.

팀 쿡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애플의 현실은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90%. 애플 제품의 90%가 중국 내 공급망을 통해 조달되고 조립됩니다.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겠다는 발표가 몇 차례 나왔지만, 중국의 인프라와 숙련 노동력을 대체하는 작업은 지지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토종 브랜드의 도전은 갈수록 거세졌고, 쿡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후계자에게 넘겨줄 지정학적 기반을 다져야 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백악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온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정은 더 급박했습니다. 에어포스원에 함께 타고 베이징에 도착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그 쾌활한 표정 뒤에는 잔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25,956대.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BYD와 샤오미가 가성비와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이, 테슬라의 점유율은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에게 이번 방중의 지상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FSD)과 로보택시 서비스의 중국 내 규제 승인.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 전 세계 인도량의 60%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고 상용화에 실패하면, 테슬라의 미래 비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위치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 미 국방부 및 연방 정부의 핵심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에 누구보다 깊이 발을 들여놓은 기업인. 백악관 안보 참모들은 그의 방중이 국가 안보와 이익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트럼프는 머스크가 가져다주는 정치적 자본과 상징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잉의 신임 CEO 켈리 오트버그는 500대 규모의 737 맥스 및 광동체 여객기 메가 오더를 기대하며 동행했습니다. 지난 9년간 중국은 보잉 대신 에어버스를 집중 구매하며 미국 항공 산업에 타격을 줬고, 오트버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 없이는 이 시장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잉은 끝내 500대가 아닌 200대 주문을 받는 데 그쳤고, 월스트리트의 실망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이 방중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카길의 브라이언 사이크스, 쉘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핵심 인프라 판매 금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 방중을 통한 제재 해제와 시장 복귀가 절실했습니다.

금융계의 포진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록의 래리 핑크, 씨티은행의 제인 프레이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장들까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일제히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펀드 상품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폐쇄적인 금융 규제를 뚫고 100% 단독 출자(wholly-owned) 증권사 및 결제 청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 중국에서 금융업을 하려면 그동안 반드시 현지 기업과 합작(Joint Venture)을 해야 했습니다. 그 낡은 관행을 깨고, 약 50조 달러 규모의 중국 민간 자본 시장에 직접 접근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우산 아래서, 역설적으로 미국 금융자본의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 시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블룸버그 아시안은 이 장면을 두고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가 공산당 본부에 줄을 선 것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줄을 선 쪽이 누구이고, 줄을 세운 쪽이 누구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자본의 행렬을 자기 뒤에 세워 중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중국은 바로 그 시장 접근권이라는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이 화려한 방문단의 이면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당국과 비밀경호국은 CEO 전원에게 철저한 통신 보안 프로토콜을 강제했습니다. 모든 수행원은 개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미국 본토에 두고 오거나,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패러데이 케이지(Faraday cage) 안에 봉인해야 했습니다. 대신 미 정보기관이 특수 제작한 버너 폰(burner phone), 일회용 휴대전화만 쓸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호텔 방, 회의실, 차량은 물론이고 Wi-Fi 네트워크와 USB 충전 포트까지, 미국 정보 당국은 전부 중국 국가안전부(MSS)의 해킹 및 도청 장치로 간주했습니다.

무심코 케이블을 꽂는 순간 당신 회사의 영업 비밀과 AI 코드가 통째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CEO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 결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을 쏟아내는 소셜 미디어 중독자 일론 머스크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

이라는 출국 직전 트윗을 마지막으로 베이징 체류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게시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팀 쿡을 비롯한 17명의 CEO 중 누구도 베이징에서의 일상이나 회담 사진을 자기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침묵(Digital Silence)'. 정상적인 우방국 방문이었다면 악수 사진과 투자 약속을 자랑하는 포스팅이 쏟아졌을 겁니다. 이번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상태에서 진행된 거래였고, 침묵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젠슨 황의 알래스카 탑승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장면이 단지 해프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백악관 안보 참모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젠슨 황의 동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가속기는 상업용 제품이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고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기술 감시 국가(Techno-Surveillance State)를 완성하는 핵심 군사 물자라는 것.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등 미 하원 의원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세계 1위의 군사적 적대국에게 AI 칩을 넘겨주는 것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젠슨 황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줄기차게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차단하면, 그들은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것이고, 미국 기업만 거대한 수익을 잃고 기술 생태계의 주도권까지 빼앗긴다고. 그 경고가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중국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했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점유율이 사실상 0%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45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미국의 목조르기가 역설적으로 중국 토종 반도체 생태계의 독립을 비약적으로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전 세계 테크 업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그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 냈습니다. 오픈AI나 구글, 메타가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 H100을 쌓아놓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모델을 훈련시킬 때, 딥시크는 제재로 성능이 제한된 구형 칩(화웨이의 국산 칩 어센드 910B 포함)으로 600만 달러라는 비용에 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워싱턴의 제재 만능주의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 없는 결과였습니다. Sparse Attention 같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선과 알고리즘 최적화로 하드웨어의 결핍을 극복해 낸 겁니다.

이 성적표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은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회담을 앞두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징둥, 바이두 등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 10곳에 대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H200을 수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기업당 최대 75,000개까지 구매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돈을 다시 확보해 자국 증시를 부양하고,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표준을 미국 쪽으로 묶어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빗장을 걸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등 규제 당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0을 대량 구매하지 말 것

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냉혹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장 성능 좋은 미국산 칩에 의존하면 영원히 기술 식민지로 전락한다. 화웨이, 캄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의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토종 칩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이미 1월에 H200 칩 수출을 승인했다. 이제 공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구매를 허용할 것 인지에 달려 있다

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젠슨 황이 알래스카에서 전용기에 올라탄 진짜 이유는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수출 통제를 완전히 풀어달라

고 요청하고, 중국의 시진핑과 이창 총리에게는

우리 칩을 사도록 허락해 달라

고 설득해야 하는, 양면 로비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 살얼음판 위의 외줄 타기.

한국은 이 장면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17인 방문단에 끼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동시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최대 공급자이고,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Xi'an)에 대규모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밀려난 그 공백을,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메우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AI 칩 수출 통제를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엔비디아 칩 수출이 재개되면 HBM 수요가 늘어나 SK하이닉스와 삼성의 매출에 호재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에 다시 의존하게 되면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 즉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양쪽 모두에 공급하던 한국 기업의 특수한 위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회담 다음 날

AI 반도체 규제 완화 시 삼성-SK 수혜와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고 보도했고, 세종연구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조정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양극재 공급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12개월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는 한국 자동차와 전자 산업에 숨통을 열어준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 방문단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대비를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EU 기업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 트럼프가 미국 기업만으로 방문단을 구성한 것은 동맹국과의 공조가 아니라 양자 거래, 미국 대 중국의 직거래를 선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Foreign Policy는

트럼프가 동맹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미중 합의의 결과를 사후에 통보받는 위치로 밀려났다

고 지적했습니다.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의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일부 완화는 한국과 EU의 대중 수출에 호재일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 직접 거래를 트는 만큼 한국이 누려온 중간 공급자(intermediary supplier) 지위는 위축될 수 있다.”

이 방문단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있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한국 재계가 미중 양쪽에 동시 노출된 현실을 고려하면,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과 초대받지 못하는 것, 양쪽 모두 위험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 쟈슨 황의 존재는 이 회담의 근본적인 긴장 요소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대만. 전 세계 첨단 칩의 90% 이상이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됩니다. 만약 시진핑이 트럼프를 설득해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보류시키거나,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묵인받는 대가로 H200 구매를 허용하는 거래가 성사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Lowy Institute의 분석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미국의 CEO 방문단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갈망과 중국 체제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집약한다. 그 모순의 교차점에 대만이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탐내면서도, 그 시장 안에 숨겨진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서 웃으며 악수를 나누되, 버너 폰으로만 통화하고, 패러데이 케이지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소셜 미디어에 글 한 줄 올리지 못하는 방문. 트럼프는 이들을 배경 삼아

미국이 돌아왔다

고 선언하려 했지만, 그 배경에 선 사람들은 베이징의 보이지 않는 감시망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7명의 CEO가 베이징에 다녀간 뒤, 시장에서는 이 방문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잉은 500대가 아닌 200대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은 미국이 허가했지만 중국이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FSD 승인은 여전히 보류 상태였습니다. 100% 단독 출자 금융 라이선스는 약속만 있었고 실행은 불투명했습니다.

이 방문단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16조 7천억 달러의 자본 권력이 베이징을 찾은 것은 미국이 중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중국이 미국 자본 없이는 원하는 속도로 성장할 수 없다는 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불신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패러데이 케이지와 버너 폰은 그 불신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쟈슨 황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 인민대회당의 붉은 융단을 밟았을 때, 그의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수출 통제 완화의 제안서였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거절할 것을 이미 알면서 건네는 형식적인 카탈로그였을까요. 미 상무부는 허가를 냈고, 중국은 구매를 거부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AI 칩은 상품이기를 멈추고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기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7장 물과 불 사이의 2,300만 명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장면: 백악관 통고문 174단어 속에서 사라진 단어 "대만(Taiwan)"

인용 출처: A. 백악관 Readout(2026.5.14), 미 국무부, 펜타곤 B. 중국 외교부 Readout, 신화통신, CCTV C. Foreign Policy, CEPA D. 국립외교원, 박원곤(이화여대), 세종연구소 E. NHK, BBC, Financial Times

174단어. 백악관이 2026년 5월 14일 베이징 정상회담 직후 전 세계에 배포한 통고문(Readout)의 전체 분량입니다. 무역위원회, 농산물 구매, 펜타닐 규제,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단기 경제 이익에 직결된 사안들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한 단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만(Taiwan).

대만 해협(Taiwan Strait).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화통신과 CCTV가 전 세계로 타전한 중국 측 통고문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장문으로 실려 있었고, 그 중심에 대만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통고문을 좌우로 펼쳐 놓으면, 한쪽에는 대만이라는 글자가 넘쳐났고 다른 한쪽에는 공백이었습니다. 외교에서 침묵은 동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요. 인민대회당의 닫힌 문 뒤에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장의 종이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시간 15분. 양국 정상은 밀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던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기, 소고기, 대두, 무역위원회, 투자개방, 이른바 5B(Boeing, Beef, Beans,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라는 계산서를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만. 무역 관세나 기술 통제와 달리 어떤 이익과도 교환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 정통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통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직접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台是中美系中最重要的). 이를 제대로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겠지만, 잘못 다루면 두 나라는 충돌(Clashes)하고 심지어 대항(Conflicts)하게 될 것이며, 전체 중미 관계를 위험한 지경(Great jeopardy)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중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지 떠올려 보십시오. 2017년 11월, 트럼프의 첫 번째 방중 때 시 주석이 자금성에서 쓴 표현은

미국 측이 중미 관계가 방해받는 것(受到干擾)을 피하기 바란다

였습니다. 방해. 간섭. 외교적으로 둥근 단어였지요. 9년 뒤 인민대회당 테이블에 오른 단어들은 달랐습니다. 충돌(Clashes). 대항(Conflicts). 위험한 지경(Dangerous). 전쟁의 가능성까지 내포한 어휘였습니다.

시 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만 독립(台獨)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水火不容).

물과 불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고사성어는, 대만에 독립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민진당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해협의 평화적 현상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언젠든 무력을 쓸 명분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미 양국의 가장 큰 공약수(最大公約數)이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은 대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之又) 한다

고 말했습니다. 명령형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신화통신 2026.5.14). 논리 구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대만에 무기를 팔지 말고 독립 세력을 지원하지 마라. 평화와 대만 지원, 두 가지를 동시에 쫄 수 없도록 미국의 선택지를 좁혀버린 것입니다.

9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중국 해공군의 현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탄약과 무기가 고갈된 미국의 취약성도 있었습니다. 북경은 그 둘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이 장면을 두고

시진핑이 미국의 군사적 공백을 읽고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가 아닌 최후통첩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고 분석했습니다(Foreign Policy, 2026.5.15).

이 회담의 사전 막후에서 벌어진 일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왔습니다.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Does not support)

라는 표현을 써온 것이지요. 이 말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뜻이지, 대만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이 반드시 반대하거나 대만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고위 외교관들과 왕이 외교부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Opposes)

고 발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와

반대한다.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외교 문서에서 이 단어가 바뀌면 2,300만 대만 국민과 국제사회에 발신되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이 더 이상 대만의 주권적 행보를 용인하지 않으며 중국의 통일 의지 앞에 물러섰다

는 메시지가 됩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 이 발언을 끌어내려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만 내부의 저항 의지를 꺾고, 일본과 필리핀 등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에 위치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우산은 언제든 찢어질 수 있다

는 공포를 심으려 한 것입니다.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의 분석가 에드워드 루카스는

Does not support에서 Opposes로의 전환은 외교 문법의 수정이 아니라 동맹 구조의 수정

이라고 썼습니다(CEPA Brief, 2026.5.16). BBC는 이 단어 싸움을 두고

대만의 운명이 영어 동사 하나에 달려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BBC, 2026.5.15).

시진핑은 이 대만 문제를 자신이 새롭게 주창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라는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양국 정상이 향후 3년 이상의 장기적 중미 관계의 지침으로 이 '안정 관계'에 동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틀에 따르면 미중은 무역, 기술, 기후 변화 등에서 협력하겠지만, 모든 안정의 대전제는 미국이 대만이라는 붉은 선을 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잉기 200대, 대두와 소고기, 이란에 대한 중국의 막후 중재, 희토류 수출 통제 12개월 유예. 이 모든 것이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거래가 된 셈입니다. 대만은 이 거대한 새장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담 직후 기자들 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겠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대만을 방어할 것입니까?

트럼프는 미소만 지은 채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현장에서 밀어냈습니다. NHK는 이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관한 일체의 질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보도했습니다(NHK, 2026.5.14).

과거의 외교 관행이었다면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항 보증(Six Assurances)을 근거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약속(Rock-solid commitment)을 재천명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174단어짜리 통고문. 그 뒤에는 이미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서류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14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 건. 이 무기 판매안은 2025년 12월에 승인된 110억 달러 규모의 판매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딜이었고, 미 의회의 사전 승인까지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보류했는지, 네 개의 층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층위는 군사적 고갈입니다. 2026년 봄,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펜타곤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전 수행 과정에서 미국은 토마 호크 순항 미사일 재고의 27%,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61%, 사드(THAAD) 미사일의 80%를 소진했습니다. 이 첨단 무기 체계를 다시 생산해 무기고를 채우는 데 최소 6년이 걸립니다. 미사일 재고가 반 이상 줄어든 나라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을 억지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탄약이 바닥난 상태에서, 게다가 무기 유도 장치와 영구 자석에 필요한 희토류(Rare Earths)마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인도해 중국을 자극할 여유가 트럼프에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6항 보증의 파기입니다.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그 문제를 그와 논의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깨뜨렸는지 짚어야 합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약속한 6항 보증 중 핵심 조항,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사전에 중국과 협의(Consult)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겁니다. Financial Times는

레이건 이후 44년간 유지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원칙이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한 문장으로 폐기됐다

고 평했습니다(FT, 2026.5.14).

거래주의적(Transaction) 성향의 트럼프에게 대만은 자유 민주주의의 전초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보잉기 수출, 대두 수출이라는 청구서를 시진핑에게 들이밀 때 쓸 수 있는 협상 칩이었습니다. 140억 달러어치의 무기 서류를 서랍에 넣어둔 채,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고 내 농산물을 사준다면, 이 무기가 대만으로 가는 속도를 늦추겠다

는 은밀한 흥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총위를 보겠습니다. 대만 내부의 분열입니다.

정상회담 6일 전인 5월 8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요청한 약 40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안이 야당인 국민당의 보이콧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어 통과되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가 대략 130억 달러대로 깎인 겁니다.

미 국무부와 펜타곤은 대만에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백악관 안에서는 회의론이 퍼졌습니다.

대만 스스로 방위비를 깎으면서 국방을 전쟁의 도구로 만드는데, 우리가 왜 중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며 무기를 서둘러 줘야 하는가?

시진핑은 이 분열상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트럼프에게

대만의 라이칭더 정권은 주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트러블메이커일 뿐

이라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개인적 애착이 없는 트럼프가 이 논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 번째 총위는 실리콘 방패의 균열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만을 결사 방어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TSMC였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이 기업이 대만 본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를 써왔습니다. 1.4나노 등 첨단 공정의 공장은 무조건 대만 본토에 짓고, 미국이나 일본에는 한 세대 뒤쳐진 구형 공장만 지어주어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었지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방패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보조금과 관세 위협을 무기로 TSMC를 압박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500억 달러(약 200조 원)를 강제로 투자하게 만들고, 최첨단 칩 생산 라인을 미국 본토로 끌고 왔습니다. 대만의 핵심 기술 자산이 미국으로 넘어올수록, 역설적으로 미국이 대만 본 섬의 생존에 목을 매야 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이미 가져오고 있으니, 대만 영토 자체의 지정학적 가치는 예전만 못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TSMC의 애리조나 이전이 대만 안보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기술을 흡수하면 할수록 대만을 지킬 경제적 유인은 약해진다. 실리콘 방패는 녹아내리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국립외교원 정책포럼 발표, 2026.5).

이 이야기가 서울에서 읽히는 이유를 이제 짚어야 합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용 가능성,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이 질문들은 가정이 아니라 국방부와 외교부가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세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자산, 오산과 평택 기지의 전략 자산을 대만 방면에 전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적 자율성

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바로 대만 유사시입니다. 5월 13일 서울에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1시간 간격으로 접견한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에 다른 카드를 내밀면서 한국의 자율적 외교 공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공간이 대만 유사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아직 시험받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본도 같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다카이치 산아에 총리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발언을 거듭했고, 이것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제1도련선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나라가 대만 문제에서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는 질문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겹칩니다. 미중이 대만을 둘러싸고 충돌하면 한반도의 전략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CCTV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방중 계기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한다

고 밝혔습니다. 미중이 대만에서 공조하면 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이 가능해지지만, 미중이 대만에서 갈등하면 북한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국립외교원의 한 연구위원은

대만 변수와 북한 변수는 한국 안보에서 별개의 파일이 아니라 같은 폴더 안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한 것, 174단어 통고문에서 대만을 지운 것, 이 행위들이 한국에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도 그 거래 목록에서 면제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한 것을 한국에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희망이지 분석이 아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향해

충돌과 대항

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트럼프는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140억 달러의 무기 서류는 서랍 속에서 먼지를 모으고 있고, 대만 입법원은 국방 예산을 3분의 1로 잘랐으며, TSMC의 최첨단 생산 라인은 애리조나 사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재고의 61%, 사드의 80%, 토마호크의 27%가 이란 하늘 아래 쓰였습니다.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는 중국 전투기의 굉음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한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대만이 시진핑과 트럼프의 협상 메뉴(Menu)에 오르는 것이다.

그 공포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Does not support)

가

반대한다(Opposes)

로 옮겨가는 임계점은 어디입니까.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대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1도련선 전체가 흔들리고, 일본이 흔들리고, 한국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이 9월 시진핑의 워싱턴 답방 때 올 수도 있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날짜를 모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8장 호르무즈 해협의 밀약과 중국의 역할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보잉 200대와 대두 수입의 이면

도입 장면: 2026년 5월 14일, 호르무즈 해협 동쪽 해면 위에서 코스코 소속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 후호가 이란 해군의 경고 사격 한 발 없이 빠져나가는 순간

인용 출처: A. 백악관 readout, 트럼프 폭스뉴스 인터뷰(손 해니티), 루비오 국무장관 브리핑, CENTCOM 항행 경보 / B. 중국 외교부 readout, 환구시보, 신화통신 / C. Al Jazeera, Eurasia Review, Foreign Policy, CEPA / D.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 E. BBC, Bloomberg Asia, FT

위안화후호는 길이 333미터짜리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2026년 5월 14일, 이 배는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가득 싣고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느릿느릿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협 양안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내달리고, 미 해군 5함대 소속 구축함이 레이더를 돌리고, 보험료 폭등에 겁먹은 유럽과 한국 국적 유조선 수십 척이 오만만에 닻을 내린 채 꼼짝 못하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위안화후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주파수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중국 국적 선박이라는 신호를,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다는 정보를 거리낌 없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해군은 위안화후호를 향해 경고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포하지도, 검문하지도, 통행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그 전후로 코스코가 운영하는 코스퍼 레이크호와 시항하이호를 포함해 10여 척 이상의 중국 선박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봉쇄된 해협에 뚫린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은 중국 국기가 걸린 배에만 열려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닫힌 문 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바다 위에서는 그들의 대화보다 훨씬 솔직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의 말은 여러 겹의 포장을 거치지만, 배의 항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위안화후호가 해협을 빠져나간 사실, 그리고 같은 시각 그리스 국적 유조선 두 척이 오만만 앵커리지에서 45일째 묶여 있던 사실은, 인민대회당 안에서 오간 언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었습니다.

회담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통고문(readout)에는 선명한 문장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must remain open)

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문서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두 문장 모두 단정적인 어조로 쓰여 있었고, 영문 readout에서

must

와

can never

라는 조동사가 쓰였다는 점을 외교 전문가들은 주목했습니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처럼 읽히도록 의도된 문장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날 저녁 폭스뉴스 손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합의를 자랑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시 주석은 협상이 타결되기를 원했다. 그는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단히 큰 성명(That's a big statement)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이란의 통행료(toll) 징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 합의를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 발표문만 읽으면 미국이 거대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을 열어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란 핵무기

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측 성명은

양국 정상은 중동,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 적었을 뿐입니다. 한 쪽은 합의의 내용을 적었고, 다른 쪽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적지 않은 겁니다. 같은 회의실에서 나온 두 장의 종이가 서로 다른 회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대칭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듣고 싶은 말을 건넸지만, 그 말이 자국의 공식 문서에 새겨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란이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압박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글로벌 남방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구축해온 강대국의 간섭에 맞서는 동반자

라는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주이란 중국 대사가 테헤란과 유지해온 비공개 채널의 신뢰도 흔들립니다. 신화통신은 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는 한 문장에 호르무즈와 이란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선물'을 줬지만, 영수증은 자기 손에 남겨두었습니다.

비용 없는 양보

라는 말이 외교가에서 떠돌았습니다. 이 표현을 처음 쓴 것은 Eurasia Review의 5월 15일자 분석 칼럼이었는데,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두 가지, 곧 이란 핵무장 반대와 호르무즈 개방 지지는, 중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존 입장(long-standing position)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것에는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이유는 중국 자신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핵무장한 이란은 중동 전역에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타일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중국 일대일로(Belt and Road)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이 꿈꾸는 '달러 탈피, 위안화 결제' 원유 시장의 실험대입니다. 이란의 핵 보유가 사우디를 핵 개발로 내몰면, 걸프 왕정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중국이 중동에 깔아놓은 경제 인프라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까지 번지는 핵 경쟁은 중국이 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시 중국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중국 원유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1,100만 배럴 안팎의 원유를 수입하는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에게, 해협 봉쇄는 경제 심장부에 혈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사태입니다. 해운 운임이 폭등하면 중국산 공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미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중국 내수 경제에 추가 타격을 줍니다.

시진핑은 어차피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핵무장에 반대하는 것도 중국의 이익이고, 해협을 여는 것도 중국의 이익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이익을 재확인한 것인데, 그 대가로 관세 인하 협의 개시, AI 반도체 제재 논의, 대만 문제에서의 미국 자제라는 훨씬 무거운 것을 받아 안은 셈이었습니다.

Foreign Policy의 한 필진은 이 구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진핑은 빈 봉투를 건네며 트럼프에게 '선물'이라고 말했고, 트럼프는 그 봉투를 카메라 앞에서 펼쳐 보였다.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는 5월 16일자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문제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은, 유럽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유럽의 에너지 공급도 흔들립니다.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

해서 해협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유럽은 중국을 '위험한 경쟁자'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에너지 안보라는 한 축에서는 중국이 '필요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시진핑의 한 마디가 워싱턴과 브뤼셀 양쪽을 향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 봉투가 비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이란 공습 작전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는 단기전을 예상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붕괴 대신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로 응수했습니다. CENTCOM(미 중부사령부)이 해협 인근에 항행 경보를 발령한 뒤, 국제 해운 보험 시장에서 호르무즈 통과 선박의 전쟁 보험료(war risk premium)가 선박 가치의 2%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7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까지 6개월. 유가와 지지율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트럼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로 내리겠다

고 공약한 대통령이 갤런당 5달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까지

이란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We don't need it at all)

고 말한 것과, 회담 뒤 시진핑의 '도움 제안'을 텔레비전에서 자랑한 것 사이에는 6,500킬로미터의 태평양만큼이나 넓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원유 60만 배럴. 하루입니다.

회담을 전후로 중국은 미국산 원유 구매를 조용히 재개했습니다. 규모가 일일 약 60만 배럴(600,000 barrels per day). 당시 시장가로 계산하면 매월 약 1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 흐름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의 정유 시설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중국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 원유를 사갈 것

이라며 이를

위대한 거래

의 결과물로 내세웠습니다.

이 60만 배럴이라는 숫자를 맥락 속에 놓아야 무게가 보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하루 약 30만 배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상호 관세 보복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매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60만 배럴은 무역 전쟁 이전 수준의 두 배입니다. 한순간에 이 규모로 뛰어오른 것은 에너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신호였고, Bloomberg Asia는

베이징이 텍사스에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

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원유 대량 구매와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완화되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60일 이내에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CPI)이 0.3%에서 0.4%포인트 내려 갑니다. 이 수치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관세를 전부 철폐하는 것보다 물가를 더 빨리, 더 크게 끌어내리는 효과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한 차례 내리는 것보다 체감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 지형에서 이 거래가 갖는 의미는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텍사스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의 셰일 오일 생산업체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원유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 우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다시 열린다는 것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셰일 산업에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었고, 이 지역은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를 팔아 무역 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화당 기반 유권자들의 지갑을 채우는 공식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습니다. 그 공식을 건네준 쪽은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런데 60만 배럴이라는 숫자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란 경제를 지탱해온 유일한 생명줄은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을 제재할 때도 중국은 매일 약 138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사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역 등에서 선박 간 환적(ghost fleet) 방식을 써서, 이란산 원유의 산지를 세탁한 뒤 중국 정유소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운영 방식은 정교했습니다. 이란 유조선이 원유를 싣고 말라카 해협 인근까지 오면, 그곳에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국적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실었습니다. 옮겨 실은 선박의 AIS 기록에는

말레이시아산 원유

라고 찍혔습니다. 같은 기름이 이름만 바뀌서 중국 산둥성의 독립 정유소(teapot refinery)에 도착하는 겁니다.

결제는 100% 인민폐(위안화)로 이루어졌고, 이 자금은 혁명수비대의 전쟁 수행 능력, 미사일 생산 라인, 그리고 164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통제하는 내부 치안 비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란의 2025년 원유 수출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산 90%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독점 고객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원유 60만 배럴을 사들인다는 것은, 이란으로부터 사들이던 물량을 그만큼 줄이거나, 지불을 미루거나, 아니면 이란산 원유의 가격 협상에서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정유 설비 용량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원유가 60만 배럴 들어오면, 그만큼의 공간은 다른 곳에서 비워야 합니다. 그 '다른 곳'이 이란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Bloomberg Asia는 이를

지갑으로 치는 주먹(a fist made of a wallet)

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열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은 구매 주문서 한 장으로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은 바다를 통제할 수 있지만 이란의 의지를 바꿀 수 없었고, 원유 대금은 이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화였습니다.

이란의 군부 강경파들이 아무리

미제국주의에 대한 성전

을 외쳐도, 미사일 부품을 살 돈이 마르면 전쟁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드론을 띄울 예산이 바닥나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속정을 배치할 연료도 구할 수 없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Quds Force)이 시리아, 레바논, 예멘의 대리 세력에 보내는 자금도 결국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사주는 돈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고객이자 사실상 유일한 원유 구매자였고,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군사력보다 날카로운 지렛대였습니다.

왕이-이란 비공개 채널

왕이 외교부장과 주이란 중국 대사가 테헤란과 유지해온 비공개 채널이 이 시기에 얼마나 바쁘게 작동했는지는 아직 공개된 문서가 없습니다. Al Jazeera의 5월 중순 보도는

이란 외교부장관 압바스 아라그치가 베이징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 측과 접촉했다

고 전했지만,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T는

왕이가 4월 말부터 이란 측과 수차례 화상 통화를 가졌다는 소식이 외교가에 돌고 있다

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익명의 소식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해협에서 벌어진

선택적 통행(selective opening)

이라는 기이한 현상 자체가 왕이-이란 채널의 산물이라는 추정은 여러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의 존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중국이 중재한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가 바로 이 채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왕이는 그때 사우디의 무사이드 알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란의 알리 샴카니 안보 최고회의 서기를 베이징에 불러 악수시켰습니다. 그 경험에 있기에 이란도 왕이의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왕이도 이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감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제재 아래서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중국의 원유 구매 대금이고, 이란 리알화의 가치를 받쳐주는 것은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원유 수입을 줄이거나 위안화 결제를 지연시키기만 해도 이란 경제는 수개월 안에 위기에 빠집니다. 이란의 선택은

중국의 요청을 들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

였습니다.

선택적 통행이라는 타협안은 이란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이란 자신의 원유 수출도 막히거든요. 중국 선박에만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미국과 서방에 대한 봉쇄의 위협을 유지하면서, 자국 원유를 실어 나를 중국 선박의 통행은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일을 되짚으면 이렇습니다.

미 해군 5함대가 항공모함을 띄우고 있었지만 해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전면 봉쇄를 선언하고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 국적, 한국 국적, 일본 국적 유조선들은 오만만에 묶여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치솟았고, 용선료가 폭등했고, 도착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 선박들만 빠져나갔습니다. 위안화후호, 코스퍼 레이크호, 시항하이호. 이 배들은 AIS를 꺼서 은밀하게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중국 배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송출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란 해군은 이들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이 해협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 BBC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세계 최강 해군이 열지 못한 문을, 외교관의 전화 한 통이 열었다

는 취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FT는 좀 더 건조하게

호르무즈 해협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보여준 하루(a day that showed where the key to Hormuz lies)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장면이 뜻하는 바를 트럼프가 어떻게 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텔레비전에서 말한 것은

시 주석이 돕겠다고 했고, 실제로 돕고 있다

는 서사였습니다. 시진핑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어디에서도

코스코 선박이 호르무즈를 무사 통과했다

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구시보는 호르무즈 관련 기사를 아예 실지 않았고, 신화통신의 정상 회담 보도에도 해협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보여주되,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베이징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풍경이 사뭇 달라집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정유 시설이 타격을 받고,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가 요동칩니다. 2026년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보험료는 전쟁 전 대비 3배 이상 올랐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국적 유조선 2척이 오만만

에서 10일 이상 대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미국산 원유(WTI Midland) 도입 비중을 전체의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는 카자흐스탄산 원유(CPC Blend) 도입량을 확대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었고, 현대오일뱅크는 서아프리카산 원유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국 정유 산업의 조달 지도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소의 시설은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고, 미국산 경질유나 서아프리카산 원유로 급격하게 전환하면 정제 마진이 떨어집니다.

미중 정상회담

호르무즈 개방

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한국 에너지 업계에 안도를 줬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해협의 문이 중국 선박에만 열린다면, 한국 선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 이란과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

선택적 통행

을 관리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한국의 원유 수급은 결국 베이징의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고, 중국이 호르무즈 통과를 보장해주는 교환이 성립한다면, 한국 외교의 자율성은 한 뼘 더 좁아지게 됩니다.

국립외교원의 한 연구위원은 비공개 세미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서 '이중 의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고 지적했습니다. 원유 자체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 원유가 통과하는 바닷길의 안전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의존하는 구조. 두 개의 의존이 겹쳐 있는데, 둘 다 한국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해협을 열 수도 없고, 중국의 외교력에 의존해서 해협을 열 수도 없는, 양쪽 다 남의 카드인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와

전략적 자율성

을 내걸고 미중 사이에서 사안별 연대를 추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5월 13일에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핑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한 시간 간격으로 접견했고, 한국이 미중 사전 협의의 무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사안별 연대

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사안에서 한국이 연대할 수 있는 상대는 미국이 기도 하고 중국이기도 한데, 두 나라가 이 사안에서 각자 다른 카드를 꺼내 들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해협을 열려 했고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으로 해협의 일부를 열었고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두 접근법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합의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건넨 약속, 곧 이란 핵무장 반대와 해협 개방 지지라는 두 가지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앞서 짚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입장

이라는 것이 곧

이미 이란이 듣고도 무시해온 말

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Eurasia Review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의 핵 개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난 20년간 UN 안보리 표결을 포함해 수십 차례에 달합니다. 이란은 그 반대를 알면서도 우라늄 농축 수위를 60%까지 올렸고, IAEA 사찰관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가. 원유 구매를 줄이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제적 압박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쟁 의지를 꺾을 수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 별도로 움직이는 준국가적 조직이고, 자체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동기로 작동하는 집단입니다. 이란 경제의 20~40%를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추산이 있고, 이 기업들은 중국 원유 대금과 별개로 독자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습니다. 돈줄을 죄는 것으로 이런 조직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Foreign Policy의 한 칼럼은

낙관론은 희망이지 분석이 아니다(Optimism here is hope, not analysis)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도 이 거래의 내구성은 불확실합니다. 미국산 원유를 하루 60만 배럴 사가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순간 철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관세 협상이 교착되거나,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오르거나,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대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면, 중국은 미국산 원유 대신 다시 이란산 원유를 늘릴 수 있습니다. 60만 배럴은 합의가 아니라 조건부 의향에 가까웠습니다. 서명도 없고, 이행 시한도 없고, 위반 시 제재도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트럼프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이 거래에

10점 만점에 12점

을 매겼습니다. 시진핑은 아무 점수도 매기지 않았습니니다. 중국 관영 매체 어디에서도 호르무즈 합의에 대한 자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환구시보는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라는 관용구를 쓸 뿐이었습니다.

한 쪽은 점수를 매기고 자랑했고, 다른 쪽은 침묵했습니다. 외교에서 이런 비대칭이 나타날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얻었는지를 판단하는 오래된 기준이 있습니다. 떠드는 쪽보다 조용한 쪽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조용했던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이 책의 몫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놓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대가로 관세 협의체 출범, 반도체 수출 통제 논의, 대만 관련 미국의 언어 변화를 얻어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 약속과 원유 구매 약속을 받았지만, 두 약속 모두 이행 시한도, 위반 시 제재도, 검증 메커니즘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코스코 유조선들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한국 국적 유조선들은 여전히 오만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며 본 위안화후호는 5월 14일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뒤 중국 닝보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서. 그 기름이 중국 정유소에서 정제되어 플라스틱이 되고 합성섬유가 되고 아스팔트가 될 때쯤, 미국산 원유를 실은 또 다른 코스코 선박이 텍사스 코퍼스크리스티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할 겁니다. 60만 배럴씩. 매일.

해협의 열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열쇠의 주인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누구를 위해 문을 열고 닫을 것인가입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이 이란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대화에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변수로 들어가 있기는 한 것인지, 오만만의 닻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중국 선박보다 얼마나 늦어질지, 5월 15일 현재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보잉 200대와 대두 수입의 이면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보잉 200대와 대두 수입의 이면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10장 AI 패권 경쟁: 타협을 거부한 기술 장벽

도입 장면: 2026년 5월 14일, 보잉 주가 4.1% 급락 직후 시카고 본사 회의실

인용 출처: 백악관 발표문,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발언, 로이터, 블룸버그, 신화통신, 중국 외교부, Foreign Policy, CEPA, 세종연구소, 최은주(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연합뉴스, 닷케이, Financial Times

시카고 다운타운 노스 리버사이드 플라자. 2026년 5월 14일 오전 9시 32분, 뉴욕증시 개장 직후 보잉 본사 18층 회의실에서 한 임원이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가 그래프의 빨간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4.1%. 숫자가 5%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날아온 소식은 분명

좋은 뉴스

였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200대 항공기 구매 합의. 9년 가까이 얼어붙었던 대중국 판매가 풀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축포 대신 투매로 응답했습니다.

이 4.1%의 낙폭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자랑한

10점 만점에 12점

발언이 감추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500대를 기다렸던 사람들

보잉의 신임 CEO 켈리 오트버그가 직접 베이징행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을 때, 월스트리트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500대. 로이터 통신과 항공 업계 전문 매체들이 수개월간 보도한 숫자였습니다. 737 맥스와 광동체 항공기를 포함한 초대형 계약이 임박했다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래리 컬프 CEO까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본부에 나타났으니, 시장의 확신은 당연했습니다.

근거도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1차 방중 때 중국은 보잉 항공기 300대, 장부가 기준 약 370억 달러 규모의 구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역사적인 외교적 선물을 받았다고 기

빠했지요. 그 뒤로 9년 가까이 빙하기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737 맥스 추락 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중국은 보잉 구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긴 공백 동안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6대 주요 항공사가 지난 6개월 사이에만 에어버스 A320 계열 356대를 쓸어 담았습니다. 보잉은 철저히 소외됐고, 중국 민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대라는 기대치는 뜬금없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9년간 쌓인 밀린 수요, 300대를 넘겼던 전례, CEO 두 명이 동시에 베이징에 간 사실. 이 모든 것이 시장에

이번에는 크게 터진다

는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200대가 발표되자 시장은 0.3초 만에 계산을 끝냈습니다. 기대치의 40%. 부족합니다.

숫자 뒤에 빠져 있는 것들

200대라는 숫자보다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빠져 있는 정보였습니다.

어떤 모델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37 맥스인지, 787 드림라이너인지, 777X인지. 인도 시기도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넘기는 건지, 5년에 걸쳐 나눠 주는 건지. 가격 조건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확정 가격(Firm pricing)이 아니라 협상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업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확정 주문서(Firm order)가 아닙니다. 의향서에 가깝습니다. 외교적 상황이 바뀌면 번복되거나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 종류의 약속입니다. 2017년의 300대 계약도 결국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채 무역전쟁의 파도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대. 모델 미정. 납기 미정. 가격 미정. 주가 4.1% 하락. 이것이 베이징이 내놓은 청구서의 실체였습니다.

9,000대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로이터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45년까지 향후 20년간 약 9,000대의 신규 여객기가 필요합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만한 항공 시장은 없습니다. 200대는 이 9,000대의 2.2%에 해당합니다. 시진핑은 이 파편을 정밀하게 깎아서 트럼프에게 건넨 셈입니다.

트럼프가

200 big ones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은 주되, 미국 항공 산업이 안도감을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이 숫자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의 양산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목표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2024년 C919 생산 목표는 30대였는데 실제 인도는 13대에 그쳤습니다. 자국 생산 능력이 폭증하는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은 서방의 비행기를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베이징은 미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목줄을 쥐는 외교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8,800대의 발주권은 여전히 시진핑의 서류함 안에 잠겨 있으니깐요.

한국의 자리

보잉 200대 이야기는 시카고와 베이징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의 핵심 MRO(정비, 수리, 분해검사) 협력 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보잉의 기체 부품을 생산합니다. 보잉의 대중국 판매가 살아나면 이들 한국 기업의 주문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200대에서 멈추면, 기대했던 물량의 상당 부분이 증발하는 셈이지요.

동시에 역설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색돼 보잉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동안, 에어버스가 빈자리를 채웠고, 그 과정에서 한국 항공 부품 업체 일부는 에어버스 쪽 공급망으로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다시 풀리면 보잉 쪽 물량은 돌아오겠지만, 그동안 쌓아둔 에어버스향 포트폴리오와의 균형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의 시험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면 한국 부품사에 호재이지만, 미국이 중국에 양보한 조건이 한국 수출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구조. 이 계산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실시간으로 따라잡고 있었다는 건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대두 2,500만 톤과 팜벨트의 산소호흡기

보잉 다음으로 트럼프가 흔든 영수증은 대두(Soybeans)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인디애나. 이른바 팜벨트(Farm Belt)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2026년 11월 중간선거의 캐스팅 보트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전까지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51% 폭락시켰고, 그 빈자리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메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 전환

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은 브라질 마투그로수 주 등 핵심 농업 지대에 항구 인프라와 물류망을 직접 깔아줬습니다. 선물 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브라질은 중국에 8,000만 톤이 넘는 대두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1위 대두 수출국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역설적으로 자국 농민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남미 경쟁자만 키운 셈이지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매년 2,5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다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향후 3년간 연간 수백억 달러(double-digit billion) 규모의 농산물 구매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의 대두 선물 가격은 단기적으로 반등했고, 중서부 농가에는 산소호흡기가 다시 꽃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였을 뿐이지만요.

소고기 허가증의 수수께끼

대두와 함께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14개월 동안 갱신을 보류해서 붕괴 직전에 놓였던 수백 곳의 미국산 소고기 도축, 가공 공장의 중국 수출 허가(License)를 복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고기 수입 허가를

유효

로 바꾼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스템상에서 이를 다시

보류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유효. 보류. 유효. 보류. 몇 시간 간격으로 상태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블룸버그가 이 사실을 보도하자, 워싱턴의 농업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행정적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수백 곳의 공장 허가를 동시에 바꾸는 시스템에서

실수로

되돌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서류의 승인 버튼은 우리 손에 있다.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잠근다.

생사여탈권의 시연이었습니다.

펜타닐, 그리고 관세의 산술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가져온 세 번째 영수증은 펜타닐이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 화학물질 대미 수출을 중국이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보답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20%의 펜타닐 연계 징벌적 관세를 10%로 절반 인하했습니다.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전체 관세율은 57%에서 47%로 낮아졌습니다. 10%포인트 인하.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조치였습니다. 고율 관세의 부메

량을 맞아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에서 1,5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물가 부담이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을 31%까지 끌어내린 주범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양국은 24%의 상호 보복 관세(reciprocal tariff)를 향후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개월. 이 숫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보잉도, 대두도, 관세도, 그리고 곧 이야기할 희토류도 전부 12개월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12개월은 중간선거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에게 12개월은 미국을 다시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레버리지였습니다. 같은 숫자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출의 섀범

관세 유예 소식에 한국 산업계도 계산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면 한국 수출에는 복합적인 영향이 옵니다.

한쪽은 호재입니다. 미중 간 무역이 다시 돌아가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가 다시 흐릅니다.

다른 한쪽은 위협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동안 한국은

대체 수요

를 누렸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운 겁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이 대체 수요가 줄어듭니다. 중국 제품이 다시 미국 시장에 들어오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사안별 연대

라는 외교 노선이 이 복잡한 섀범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통화스와프 협력을 내밀고, 중국에는 실질 협력 확대를 제안하는 양면 접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줄타기 외교의 한계가 드러날 것

이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의원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무 수준에서 보면, 한국은 어느 한쪽에 확실히 서기엔 양쪽에 걸린 경제적 이해가 너무 깊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분석대로, 한국은

선택의 딜레마

가 아니라

동시 관리의 부담

을 안고 있었습니다.

희토류: 12개월짜리 산소통

이번 회담에서 체결된 모든 12개월짜리 거래 가운데, 미국 산업계를 뿌리째 흔든 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였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 정제 및 가공의 85%에서 90%, F-35 전투기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영구 자석 생산의 93%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자, 중국은 2025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디스프로슘, 터븀, 이트륨 등 핵심 희토류 12개 원소에 전면적인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Foreign Policy와 CEPA의 분석을 보면 드러납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액추에이터 납기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도 미사일과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가 부품 수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펜타곤의 희토류 재고가 수개월 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담 결과, 중국은 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와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부품 수급이 가능해지는 구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유예는 과거에 부과된 모든 희토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부과된 통제 조치만 12개월간 집행을 멈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전의 수출 허가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7년에 양국 관계가 다시 틀어지면 중국은 이 조치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다시 내리면 그만이니깐요.

서방 중심의 독자 희토류 공급망, 이른바

Mine-to-magnet

(광산에서 자석까지)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수천억 달러가 듭니다. 트럼프가 받은 건 1년짜리 산소통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안도감에 빠져 자체 공급망 구축을 게을리하면, 시계가 다시 돌아갈 때 미국의 처지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년을 더 허비한 만큼 나빠지는 겁니다.

닛케이의 분석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중국은 시간을 팔고, 미국은 시간을 샀다. 문제는 중국이 판 시간과 미국이 산 시간의 가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12개월은 거의 공짜였습니다. 어차피 자국이 쥐고 있는 자원의 수출을 잠시 풀어주는 것일 뿐이니깐요. 미국에게 12개월은, 구조적 종속에서 벗어나기엔 너무 짧고 선거를 치르기엔 딱 맞는, 기묘하게 설계된 시한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숨통

희토류 12개월 유예가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영구 자석에 의존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퓨처엠, 예코프로 모두 중국산 희토류 가공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양극재 조달 경로에도 중국산 원료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예가 없었다면, 한국 전기차 공급망은 미국 다음으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12개월의 유예는 한국에도 숨 돌릴 틈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외교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미중 사이의 거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한국 산업에 산소를 공급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유예 기간 동안 호주, 캐나다, 그린란드 등 대안 희토류 공급원 확보를 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12개월 안에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5년에서 10년짜리 과제를 1년 안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12개월의 지도

베이징에서 트럼프가 들고 나온 영수증을 한 장씩 펼쳐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보잉 200대: 모델, 납기, 가격 미정. 9,000대 시장의 2.2%. 대두 매년 2,500만 톤: 브라질이 이미 8,000만 톤을 넘기는 시장에서의 부분 복귀. 소고기 수출 허가: 유효와 보류 사이를 오가는 허가증. 펜타닐 관세: 57%에서 47%로 10%포인트 인하. 24% 상호 관세: 12개월 유예. 희토류 수출 통제: 2026년 신규 규제에 한정된 12개월 유예.

트럼프는 이것을

10점 만점에 12점

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진핑은 아무 점수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라는 외교적 상투어만 실었을 뿐, 어떤 숫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표는 애초에 달랐습니다. 트럼프에게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까지 5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등하는 물가를 잡고, 팜벨트 농민들에게

내가 해냈다

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2개월은 선거를 넘기고도 남은 여유였습니다.

시진핑에게 12개월은 비용이 거의 없는 양보였습니다. 대두는 어차피 미국에서든 브라질에서든 사야 합니다. 비행기도 C919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상 서방에서 사야 합니다. 희토류는 수출을 잠시 풀어줄 뿐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시진핑이 실제로 내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년 뒤에 도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Financial Times는 이 구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용 진통제를 받았고, 시진핑은 12개월짜리 리모컨을 손에 쥐었다."

보잉의 미래가 베이징에 달려 있다는 사실, 미국 농민의 생존이 중국의 구매 약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 미국 방위산업의 부품 수급이 중국 희토류 스위치에 걸려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한 장의 합의 문에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12개월 뒤, 2027년 5월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치른 뒤일 것이고, 시진핑은 약속을 연장할지 거둬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C919의 생산량이 30대를 넘겼는지, 브라질이 여전히 대두 1위 수출국인지, 펜타곤이 대안 희토류 공급원을 확보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12개월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워싱턴도 베이징도 그 시계가 멈추는 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10장 AI 패권 경쟁: 타협을 거부한 기술 장벽

제10장 AI 패권 경쟁

제10장 AI 패권 경쟁: 타협을 거부한 기술 장벽

이전 장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보잉 200대와 대두 수입의 이면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유예된 12개월의 시한폭탄

도입 장면: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가족 재킷 차림의 젠슨 황이 에어포스원 트랩을 오르는 순간

인용 출처: 백악관 통고문(2026.5), 트루스소셜 트럼프 발언, 신화통신 회담 보도, 환구시보 딥시크 사설, CCTV 한반도 언급 보도, CEPA 유럽 반도체 분석, Foreign Policy 블랙칩 르포, 세종연구소 반도체 정책 브리프, 최은주(세종연구소) 코멘트, 연합뉴스 삼성/SK하이닉스 분석, Bloomberg 엔비디아 실적 보고, 닛케이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보도, FT 딥시크 분석

2026년 5월의 어느 새벽,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 에어포스원이 베이징으로 가기 전 급유를 위해 멈춘 활주로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수행단 17인의 CEO는 이미 기내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비행기 트랩 앞에는 경호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활주로 끝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 가족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그는 원래 수행원 명단에 없었습니다.

젠슨 황이 트랩 계단을 오르는 영상이 수 시간 뒤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을 때, 월스트리트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2% 뛰었습니다. 중국 테크 업계의 위챗 단체방에서는

칩 밸브가 열린다

는 말이 돌았습니다. 가족 재킷 한 벌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던진 신호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 AI 칩을 다시 팔겠다는 것.

그러나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문이 닫히고 다시 열렸을 때, 칩은 단 한 개도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의 가족 재킷은 그저 가족 재킷으로 남았습니다.

젠슨 황이 이토록 무리수를 둔 배경부터 짚어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발동되기 전까지 엔비디아는 중국 첨단 AI 칩 시장의 90%에서 95%를 쥐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10월 첫 수출 통제를 가동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조이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내 첨단 칩 점유율은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Bloomberg에 따르면 증발한 매출은 45억 달러, 한화 약 6조 원입니다. 올해 중국 AI 시

장 규모만 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젠슨 황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팔면 중국은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더 위험하다.

이 경고는 워싱턴에서 절반은 먹혔고 절반은 씹혔습니다. 먹힌 절반이 H200 칩 수출 승인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회담 수개월 전인 2026년 1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징둥닷컴, 바이두를 포함한 중국 10개 핵심 기술 기업에 엔비디아의 H200 칩 수출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승인 조건은 기업당 최대 75,000개. 엔비디아 본사나 레노버, 폭스콘 같은 공인 유통업체를 통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의 문이 합법적으로 열린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기업들이 그 칩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H200 수출 승인 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인도가 완료된 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알리바바도, 텐센트도, 바이트댄스도 주문을 넣었다 취소하거나, 계약 서명을 미루거나, 유통 경로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며 거래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배후에 베이징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당국이 자국 빅테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엔비디아 H200을 대량 구매하지 마라.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라.

공식 문서로 남은 지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미국산 칩에 대한 의존은 기술 주권의 포기과 같다

고 쓸 때, 그 사설 한 편이 어떤 공문보다 강한 지시였습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셈법은 이랬습니다. 지금 H200을 사서 성능을 올리면 당장은 편하지만,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다시 묶이게 됩니다. 언제든 밸브가 잠길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스스로 몸을 끼우는 꼴이 됩니다. 그 상태가 고착되면 중국의 AI 산업은 미국에 영원히 종속되고, 목줄이 잡힌 채 끌려다니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2020년부터 시진핑이 밀어붙여 온 쌍순환 전략, 핵심 기술의 자급자족이라는 국가 목표가 H200 카드 하나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컴퓨팅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화웨이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강제 육성하려는 교육지책이었습니다.

이 거부가 영구적인 단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H200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블랙웰(Blackwell) 같은 최상위 AI 칩의 규제 철폐,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H200 구매 거부는 미국의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는 당근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실력 행사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2개월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 것도 이 셈법의 일부입니다. 유예 타이머가 끝나는 시점,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반도체 제재의 전면 해제를 거칠게 요구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상위 칩은 안 팔려고 하고, 중국은 기술 종속을 피하려 허가된 칩마저 안 사려고 하는 평행선. 닫힌 문 뒤에서 희토류 접근

권과 대만 문제, 추가 제재 완화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전략적 보류 상태였습니다.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기자회견에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1월에 H200 수출을 허가했다. 칩을 살지 말지는 중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달렸다.

이 말 안에는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당근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당근째 밀어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거부한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양면의 신호입니다. 미국향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는 유지되지만, 중국이 자체 생태계로 돌아서면 중국향 메모리 수출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칩의 세계 시장을 함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0을 팔면 그 안에 들어가는 HBM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 문이 닫히면 HBM 수요의 일부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중국이 화웨이 어센드 칩 중심으로 자체 생태계를 키우면, 그 생태계에는 한국 메모리가 끼어들 자리가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00만 달러의 충격

중국이 미국산 칩을 거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적 담력이 있었습니다. 딥시크라는 이름이 그 담력의 원천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픈AI, 메타,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H100 칩을 수만 개씩 쌓아놓고 수십억 달러를 태우며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때, 딥시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딥시크는 H100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능이 제한된 H20, 제재를 피해 흘러들어온 구형 칩, 화웨이의 어센드 910B 같은 국산 칩을 긁어모아 훈련 클러스터를 짚습니다. 하드웨어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바꿨습니다.

딥시크가 쓴 핵심 기법은 희소 주의력(Sparse Attention)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AI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막대한 연산 자원을 소모하는 것과 달리, 딥시크는 모델이

어디를 볼지

를 먼저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건너뛰는 방식으로, 같은 성능을 훨씬 적은 연산으로 달성한 겁니다. FT는 이 접근법을

결핍이 낳은 발명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딥시크가 오픈AI의 최고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만드는 데 들인 비용은 600만 달러, 한화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오픈AI가 GPT-4 훈련에 쓴 것으로 알려진 1억 달러

이상과 비교하면 파편 수준의 금액입니다.

워싱턴의 반도체 통제 전략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칩을 막으면 AI도 막힌다. 딥시크는 그 전제를 부숴버렸습니다. 칩이 부족해도 알고리즘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신탁통신은 딥시크의 성과를 대서특필하면서

자주혁신(自主創新)의 생생한 증거

라고 불렀고, 중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미국 칩 없이도 된다

는 자신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자신감이 인민대회당 회담장 안에서 시진핑의 등을 밀었습니다. H200을 거부할 수 있는 배짱, 엔비디아에

당신들 칩이 없어도 우리는 돌아간다

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은 딥시크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딥시크의 600만 달러라는 숫자는 훈련 비용만을 가리킵니다. 인프라 구축, 인건비, 데이터 수집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00만 달러가 진짜 총 비용인지는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고, CEPA의 반도체 분석 보고서는

딥시크의 비용 주장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좁게 정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은 맞습니다. 칩의 양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질로 싸우는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의 AI 업계에서 딥시크는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힘이 약해지고 소프트웨어의 힘이 커지는 세계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블랙 칩 네트워크라는 그림자

딥시크의 알고리즘 혁신 말고도 중국이 미국의 칩 통제를 우회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Foreign Policy가 2026년 4월 장문의 르포로 보도한 블랙 칩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10월부터 엔비디아의 고급 AI 가속기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강화해 왔습니다. 워싱턴은 이 규제가 중국의 AI 산업을 질식시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칩은 석유 정제 시설이 아닙니다. 작고, 쪼갤 수 있고, 옮기기 쉽습니다. 결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칩은 물건인 동시에 서비스였습니다.

제재가 시작되자 중국 AI 기업들은 대량 구매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전역에 유령 회사와 중개업체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짰습니다. 한 기업이 1만 개의 칩을 직접 사는 대신, 수십 개의 중개업자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에서 소량씩 합법적으로 구매한 뒤 이를 쪼개 중국으로 반입했습니다.

물리적 반입보다 더 교묘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칩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중동이나 아시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구축한 엔비디아 서버에 접속해서 컴퓨팅 파워만 원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된 서버 랙이 싱가포르를 거쳐 중동 고객에게 팔리고, 그 연산 능력만 중국 본토의 AI 개발자에게 라우팅됩니다. 칩은 중국 밖에 있지만 연산은 중국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

이 과정에서 미국 규제 당국은 시야를 잃었습니다. BIS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칩이라는 물리적 하드웨어의 국경 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의 핵심은 이미 국경을 넘어 흐르는 디지털 연산 능력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닷케이 아시아는 이 현상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통제망은 붕괴를 지연시켰을 뿐(Delay, not control), 막지는 못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블랙 칩 네트워크는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제재라는 인위적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시장의 자본이 이윤을 좇아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자 인프라였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창문이 열리고, 창문을 닫으면 지하 통로가 생기는 구조. 규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우회로의 가격도 올라가지만 우회로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위치에서 블랙 칩 네트워크는 불편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 칩 중 일부가 이 그림자 공급망의 어딘가에서 흘러 다닐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한국산 부품이 동남아 중개업체를 거쳐 중국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어렵습니다. 미 상무부가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블랙 칩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

고 압박할 때, 그 압박의 첫 번째 대상은 한국이었습니다.

인민대회당에서 벌어진 일, 정확히는 벌어지지 않은 일

2시간 15분의 회담이 끝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측 대표단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USTR 대표 그리어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백악관 통고문에도 첨단 칩 거래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양측이 내놓은 것은 'AI 안전 및 거버넌스 대화(AI safety and governance dialogue)'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Foreign Policy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 합의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두 육상 선수가 트랙 위에서

달리기는 참 좋은 운동이다

라고 동의한 것과 비슷하다고.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이 선언에는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구체적 일정도, 참여 범위도, 이행 메커니즘도 명시되지 않았습니
다. AI 거버넌스라는 말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 자체를 성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양국이 실제로 경
쟁하고 있는 것, 즉 누가 더 뛰어난 AI를 더 빨리 만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선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매파,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
원 같은 안보 전문가들은 첨단 칩 수출을

국가 안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자해 행위

라고 불렀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상업용 부품이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체계를 고
도화하고 14억 인구를 감시하는 기술 통제 국가의 핵심 부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가 워싱턴
에서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중국 쪽도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H200을 거부하고 화웨이 어센드를 밀어주는 전략은 이미 돌
아가고 있었고, 딥시크가 그 전략에 기술적 신뢰를 더했습니다. 미국산 칩에 다시 손을 대면

기술 자립

기치가 흔들리고, 시진핑이 5년간 쌓아온 쌍순환 서사가 무너집니다.

양쪽 다 물러날 수 없는 구조. 반도체는 이 회담에서 타협 가능한 의제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6개월짜리 시한폭탄

그러나 반도체 교착이 만들어낸 파장은 회담장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
산업계를 옥죄고 있던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었습니다. 유예 기간은 12개월, 혹
은 일부 품목은 6개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달력을 넘겨보고 경악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6개월 유예 품목의 만료 시점은 2026년 11월 10일 전후. 12개월 유예 품목도 2027년 5월입니다.
이 날짜들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네 농산물을 사주고, 보잉기도 주문하고, 희토류 목줄도 풀어주겠다. 그런데 반도체 제재를 풀지 않으면
11월에 이 밸브를 다시 잠근다.

반도체 제재 해제를 원하는 중국, 희토류 접근권이 절실한 미국. 서로의 목을 겨눈 이 인질극은 정상
회담의 악수 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이번 회담은 그 교착의
공식적인 확인이었을 뿐입니다.

11월이라는 시한은 미국 정치 일정과도 겹칩니다. 2026년 11월 3일은 미국 중간선거일입니다. 트
럼프가 상하원 과반 유지를 위해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희토류 밸브가 잠기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이 타격을 받고 유권자의 지갑이 얇아집니다. 중국은 이 시간표를 정확히 읽고 있었
습니다.

한국에게 이 6개월의 유예는 숨통이면서 동시에 불안이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이 이 유예 기간 동안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1월 이후 공급 차질이 현실이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는 이미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산 희토류 조달 경로를 타진하고 있었지만, 중국산 희토류의 가격 경쟁력과 가공 품질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착 속에서 의미 있는 반도체 돌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딥시크의 알고리즘 혁신은 대단했지만, 그것이 하드웨어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희소 주의력 알고리즘은 기존 칩의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지만, AI 모델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 추세에서 칩의 절대량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웨이의 어센드 칩은 엔비디아의 H100이나 H200에 비해 성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면에서 격차가 있었고, 그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은 SMIC를 통해 7나노미터 칩을 양산하고 있었지만,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없이 4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이 병목을 만든 것이고, 이 병목은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연구소의 반도체 정책 브리핑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혁신이 하드웨어 격차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칩 제조 공정의 물리적 한계는 소프트웨어로 뛰어넘을 수 없다

고 분석했습니다.

블랙 칩 네트워크도 구조적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한 소량 반입과 클라우드 임대는 비용이 높고 규모가 제한됩니다. 1만 개 칩이 필요한 훈련을 100개씩 나눠서 돌리면 시간도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이 규제를 더 조이면 우회로의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미국의 통제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딥시크의 출현이 보여준 것처럼, 통제는 중국의 AI를 멈추지 못했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혁신을 자극하는 역설적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이 칩의 밸브를 틀어막을수록 중국은 적은 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제가 지연을 만들었는지는 맞지만, 지연이 포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교착의 구조를 누구보다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곳이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동시에 칩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풀면 엔비디아를 통한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메모리 업체에 호재가 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풀리면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규제가 유지되면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풀려도 문제, 안 풀려도 문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중 칩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전쟁의 결과에 제일 민감하게 노출된 제3자입니다.

인민대회당의 문이 닫히기 직전,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결과뿐입니다. AI 안전 및 거버넌스 대화라는, 내용 없는 합의 한 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

젠슨 황은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공식 석상에서 이번 방중에 대해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재킷을 입고 에어포스원 트랩을 오르던 그 순간만큼 상징적인 이미지를 남겼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Bloomberg는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서 중국 매출 회복 가능성을 0%로 잡았습니다.

희토류 유예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그 사이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풀 가능성은 워싱턴의 매파 구도를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화웨이 어센드 전략을 철회할 가능성도 시진핑의 정치적 체면을 감안하면 없습니다. 양쪽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계만 돌아가는 겁니다.

6개월 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희토류 밸브를 실제로 잠그면 미국 자동차 산업과 방산 산업이 흔들리고, 한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유예를 연장해 주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약해지고 시진핑 내부에서

약하다

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이 큼니다.

그리고 AI 칩 분리(decoupling)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힘이 결국 규제를 우회해 버리는 것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 칩 네트워크는 규제의 실패를 증명합니다. 딥시크는 하드웨어 통제의 한계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같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아무 합의도 나오지 못한 이 영역. 반도체라는 이 작은 칩 위에 두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의 미래가 올라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활주로에서 에어포스원에 오른 젠슨 황의 가족 재킷은, 결국 무엇을 바꿨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11월의 시계가 답을 줄지, 아니면 새로운 질문만 더할지도.

이전 장

제9장 무역 거래의 진실: 보잉 200대와 대두 수입의 이면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유예된 12개월의 시한폭탄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유예된 12개월의 시한폭탄

이전 장

제10장 AI 패권 경쟁: 타협을 거부한 기술 장벽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장면: 에어포스원 기내, 트럼프가 수행 기자단 앞에서 “10점 만점에 12점”을 선언하는 순간

인용 출처:

- A. 백악관 발표문, 트루스소셜,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브리핑
- B. 중국 외교부 readout, 신화통신, 인민일보
- C. Foreign Policy, CEPA, Lowy Institute
- D.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 E. Bloomberg, Financial Times, 닷케이아시아, BBC

에어포스원이 베이징 캐피탈 공항 활주로를 이탈해 상승하기 시작한 건 5월 15일 오후 5시 23분이었습니다. 기체가 수평 비행에 접어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앞쪽 객실로 수행 기자단을 불러 모았습니다. 풀어진 넥타이, 양손을 허공에 벌리는 특유의 제스처. “0점에서 10점 사이의 척도로 평가한다면, 나는 12점을 주겠다(On a scale of 0 to 10 with 10 being the best, the meeting was a 12).” 기자들의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12점. 트럼프는 그 숫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세 번 더 반복했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그

12점

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세 57%에서 47%로. 그 10%포인트의 무게

트럼프가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중국산 상품에는 5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20%짜리 펜타닐 연계 징벌적 관세, 24%짜리 상호 보복 관세, 그리고 기존의 기본 관세가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 57%라는 장벽의 파편은 중국의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 2월과 3월 사이 휘발유 가격은 196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인 21%가 올랐습니다. 평

균적인 미국 가정이 연간 1,200달러에서 1,5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1월 중간선거. 그게 트럼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의회 다수당을 잃으면 남은 임기 2년이 마비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꺾어야 했고, 그래서 베이징까지 날아간 겁니다.

베이징 합의에 따라 트럼프는 펜타닐 연계 관세를 20%에서 10%로 즉각 인하했습니다.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전체 관세율은 57%에서 47%로 내려갔습니다. 24%짜리 상호 보복 관세도 향후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0%포인트의 인하. 1년의 유예. 단기적으로 미국 소매업체들의 수입 원가가 낮아지고, 소비재 물가 급등을 막을 방어막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의문의 문구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24% 관세가

취소

된 게 아닙니다.

연기

된 겁니다. 12개월 뒤인 2027년 5월이 되면, 양국은 정확히 지금과 똑같은 절벽 끝에 서서 관세를 전면 재부과할지, 영구적으로 축소할지, 아니면 다시 1년의 유예를 구걸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넣어 공장을 짓고 다년 단위 투자를 결정하려면 시스템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년 뒤면 언제든 57%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에서, 미국의 수입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은 장기 투자를 포기한 채 12개월 단위의 생존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건

거래(Deal)

가 아니었습니다. 1년짜리 진통제였습니다.

희토류의 별표(*)

관세보다 미국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분리와 정제 인프라의 90%,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 유도 미사일, 핵잠수함,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영구 자석 생산의 93%를 쥐고 있는 공급망 패권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과 캐나다 광산 매입 시도로 중국을 압박하자, 베이징은 2025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디스프로슘, 터븀, 이트륨 등 12개 핵심 원소와 그 화합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타격은 정확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출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자,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RTX) 등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부품 납기가 연쇄적으로 밀렸습니다. 이트륨 산화물의 선적 주기는 6주 간격인데, 여기에 11일의 허가 지연만 누적되어도 1년 뒤에는 88영업일,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단의 방공 미사일 인도가 늦어지면서, 이란과의 실전에서 탄약 고갈 위기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잉여 희토류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발표한

희토류 수출 규제의 12개월 유예

는 겉보기에 이 목조르기를 풀어낸 성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10여 년간 유지해 온 기본적인 희토류 통제망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2026년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 조치들만을 한시적으로 중단(suspended only the new restrictions imposed in 2026)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영구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서방이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중국 내 가공 능력을 외부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12개월이 지난 시점, 중단되었던 규제는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중국은

당장 급한 숨통은 틔워주겠지만, 이 생명줄의 밸브는 여전히 베이징이 쥐고 있다

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식화한 셈입니다.

미국이 이 12개월 안에 중국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희토류 광산을 채굴하고, 제련해서 금속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고성능 자석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광산에서 자석까지(mine-to-magnet)

공급망을 서방 세계에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수 천억 달러의 자본이 드는 것으로 산업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짧은 창(window) 안에 중국의 93% 자석 독점 구조를 대체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1년짜리 마취제를 투여한 겁니다. 당장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조급함을 간파한 중국은, 1년 치의 희토류 부품 공급과 1년 치의 관세 인하를 건넸습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게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겨누던 경제적 압박의 동력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12개월의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미국 방위 산업과 전기차 생태계의 핵심 고리는 여전히 베이징 쪽 책상 위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한국의 좌표가 여기서 겹칩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는 양극재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배터리 공급망도 이 12개월 유예의 범위 안에 놓여 있습니다. 12개월 후 중국이 규제를 재가동하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미국 방위산업체와 같은 줄에 서게 됩니다. 숨통이 트인 게 아니라, 숨통을 조일 밧줄의 매듭이 잠시 느슨해진 것이라는 평가가 세종연구소 쪽에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시나리오

에어포스원이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뉴욕의 금융 분석가들은 이미 회담 결과를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입하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양국이 관세 구조를 항구적으로 철폐하고 희토류와 기술 통제의 매듭을 완전히 푸는 구조적 해결(structural resolution)

이었습니다. 이 경우 S&P 500 등 글로벌 주식 시장은 즉각 4% 이상 랠리를 보이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달러 이상 급락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 3은 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아 전면적인 무역 전쟁과 희토류 금수 조치가 발동되는 완전한 붕괴(breakdown)

였습니다. 증시 3~5% 폭락, 유가 배럴당 120달러 돌파.

시나리오 2는 그 사이. 파국은 피하되 현상 유지만을 약속하는 안정화 악수(pure stability handshake)

.

월스트리트가 내린 판정은

시나리오 1.5

였습니다. 완전한 파국은 면했지만, 구조적 해결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봉합. 트럼프가 12점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시장은 5점과 6점 사이를 매겼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단어였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우리는 합의(Deal)를 이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 합의(framework agreement)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합의(Deal)

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따르는 확정적 계약을 뜻합니다.

프레임워크(framework)

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하자

는 뼈대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언적 문서입니다. 트럼프가 가져온 모든 양보안에는 유효기한이 적혀 있었고, 향후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조건부 합의를 항구적 승리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Deal

과

framework agreement

사이의 거리. 그 간극이 트럼프의 12점과 월스트리트의 5.5점 사이의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보잉의 4.1%

섹터별 주가 반응이 판정의 증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으뜸 성과로 내세운 건 중국이 보잉의 거대 제트 여객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 메가 딜. 그런데 보잉(BA) 주가는 발표 직후 시장이 열리자마자 4.1%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담 전 월스트리트와 항공 업계는 중국이 9년 만에 보잉 737 맥스와 광동체 여객기를 포함해 최소 500대를 대량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건넨 건 200대. 기대치의 40%였습니다. 게다가 이 200대의 계약에는 구체적인 모델명도, 정확한 인도 시기도, 확정된 가격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 허술한 의향서를 중국이 에어버스(Airbus)나 자국의 C919 여객기를 키우기 위해 미국을 길들이는 수단의 연장선으로 읽었습니다. 보잉의 장기적 불확실성을 4.1% 하락이라는 성적표로 심판한 거죠.

한국의 대한항공 MRO 사업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보잉 공급망의 일부입니다. 200대가 500대가 되지 못한 것은 이 한국 업체들에게도 기대 이하의 물량을 뜻합니다.

방위 산업과 전기차 섹터의 반응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12개월간 유예하면서, 이론적으로 록히드 마틴, 테슬라, 포드 등은 부품 수급의 숨통이 트여 주가가 크게 올라야 했습니다. 시장은 이 12개월의 유예를

진정한 안도

가 아닌

단기적 공급망 완화

로만 반영했습니다. 내년 11월에 유예가 종료되는 순간, 중국이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0.1%만 섞어 써도 규제 대상이 되는 치외법권적 통제를 재가동할 것이라는 걸 기관 투자자들은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1년짜리 카운트다운이 돌아가는 종목에 장기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도체의 침묵

이번 정상회담에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는 양국이 끝내 타협을 거부한 선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이나 공식 성명서 어디에도 엔비디아(Nvidia) 칩 수출 허가에 대한 구체적 합의 문구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이 침묵을 적색경보로 읽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과 희토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12개월간 풀어주면서 속으로 바랐던 대가는 엔비디아의 H200 등 첨단 AI 칩에 대한 규제 철폐였습니다. 미국이 이 부분에서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건, 중국이 희토류 통제 부활 시점을 당겨 반도체 생태계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월 데드라인보다 일찍.

엔비디아, AMD, 인텔, ASML.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양국이 반도체 문제를 덮어둠으로써 전면적인 공급 충격에 직면할 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의 레거시 반도체 수요에도 의존하는 이 두 회사는, 미중 반도체 갈등의 미합의 상태가 길어질수록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안별 연대

라는 표현으로 미중 사이의 줄타기를 설명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줄 위의 균형이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청원자(Petitioner)와 설계자(Architect)

월스트리트는 경제 지표를 넘어,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두 나라의 협상 태도와 권력의 비대칭성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17명에 달하는 미국 최고의 억만장자 CEO 군단. 시가총액 합계 13조 달러 규모. 이들을 병풍처럼 대동하고 붉은 카펫을 밟은 트럼프의 모습은 겉보기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진행된 대화의 양상은 불균형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보잉 비행기를 사달라, 대두를 사달라, 이란에 전화 한 통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쪽이었습니다. 개별적인 메뉴판의 항목들을 하나씩 건네며 양보를 구하는 자세. 외교 분석가들이 쓰는 표현으로

청원자(Petitioner)

의 언어였습니다.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다만 문제를 첫 번째 의제로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벽을 세운 뒤,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라는 향후 3년의 틀을 일방적으로 설계해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readout은 이 프레임워크의 세부 항목을 장문으로 펼쳐 놓았고, 백악관 발표문은 174단어로 끝났습니다. 이 비대칭 자체가

누가 의제를 쥐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Foreign Policy는 이 구도를

설계자(Architect) 대 청원자(Petitioner)

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개별 거래의 성사 여부에 매달렸고, 시진핑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판 자체를 짭니다.

Lowy Institute의 분석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 11월 중간선거 압박, 이란 전쟁 후 유증, 동맹국과의 균열. 이 모든 약점을 읽은 중국이, 미국이 스스로 승리라고 포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보만을 정확히 계산해서 건넸다는 겁니다. 보잉 200대, 관세 10%포인트 인하, 희토류 12개월 유예.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흔들 수 있는 종이 한 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분량.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는 이를

관리된 경제 공존(managed economic coexistence)

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했는데, 그 프레임 자체가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12개월 시한폭탄과 한국 산업

이 12개월의 시계가 한국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47%로 낮춘 건 한국 수출에 양면적입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다시 쉬워지고, 그동안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

는 줄어듭니다.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사던 미국 바이어들이 다시 가격이 낮아진 중국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중 관계가 안정되면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늘어나 한국 수출 총량에 는 호재입니다. 어느 쪽 효과가 더 큰지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희토류 12개월 유예는 한국 자동차, 전자 산업에 숨통을 주는 건 맞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 LG전자의 가전 부품. 이것들이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12개월간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12개월 뒤에는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mine-to-magnet 공급망 구축. 한국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도 풀지 못하는 12개월 안에 한국이 대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월 13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핑 중국 부총리를 청와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접견하면서 보여준

사안별 연대

의 줄타기는, 이 12개월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 동시에, 그 자세가 가진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사전 협의 장소가 된 건 외교 자산입니다.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베센트와 허리핑이 마지막 실무협상을 마친 건, 2025년 10월 부산 APEC 이후 한국이 미중 사이의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대를 제공한다는 건,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장소

로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립외교원의 한 연구위원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위치성(positionality)은 자산이자 부채

입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12점을 선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시나리오 1.5를 매겼습니다. USTR의 그리어는

Deal

이라고 부르지 않고

framework agreement

라고 불렀습니다.

12개월 뒤, 관세 24%의 유예가 끝나는 날. 희토류 규제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날. 미국의 mine-to-magnet 공급망은 여전히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표 위에 있을 겁니다. 중국은 그때 무엇을 요구할까요. 대만 무기 판매의 전면 중단일 수도 있고, 반도체 수출 통제의 완전한 철폐일 수도 있습니다. 2027년 5월의 미국은 지금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누가 먼저 약속을 깰까요. 보잉 200대의 인도는 시작되었을까요.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라인 은 가동 중일까요. 삼성전자의 HBM 수출 허가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국은 그 12개월 안에 있습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장

제10장 AI 패권 경쟁: 타협을 거부한 기술 장벽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12장 각자의 시간 벌기와 교차하는 통고문

이전 장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유예된 12개월의 시한폭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도입 장면: 백악관 공보실 직원이 174단어짜리 통고문을 이메일로 뿌린 시각,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 실에서는 장문의 발표문 인쇄기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인용 출처:

각자의 시간 벌기와 교차하는 통고문(Readout)

A. 백악관 공식 readout (2026.5.14), 트럼프 트루스소셜, 미 국무부 브리핑 B. 중국 외교부 영문 readout (2026.5.14), 신화통신, CCTV 뉴스런보, 인민일보 사설 C. Foreign Policy

The Asymmetric Readout

(2026.5.15), CEPA 분석 브리핑, Al Jazeera D. 국립외교원 이슈브리프,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분석, 연합뉴스 E. BBC World Service, Financial Times 사설, NHK 워싱턴 특파원

2026년 5월 14일 오후 4시 32분(베이징 시각), 인민대회당 동쪽 출입구로 검은 세단이 빠져나갔 습니다. 2시간 15분짜리 마라톤 회담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세계 언론의 시선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 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올 문서 한 장, 베이징에서 쏟아질 문서 여러 장.

워싱턴 시각 오전 4시 47분, 백악관 공보실이 배포한 이메일 본문은 174개 영단어였습니다. 기자들 은 첨부파일이 누락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74단어. 보잉, 대두, 소고기. 대만은 없다.

첫 문장은

Good meeting

이었습니다. 좋은 만남.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바닥에 가까운 등급입니다.

productive

(생산적)보다 아래,

candid

(솔직한)보다 아래. BBC 워싱턴 특파원 게리 오도너휴는 이 표현을

외교 사전에서 '별 이야기 못 했다'에 해당하는 등급

이라고 풀었습니다.

174단어 안에 담긴 것은 상품 목록이었습니다. 보잉 항공기 구매, 대두와 소고기 수입 재개, 펜타닐 전구체 단속,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항로 안정,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쓸 수 있는 '5B(Boeing, Beef, Beans,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의 파편들이 전부였습니다. 세계 질서나 안보에 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Financial Times 사설(5월 15일 자)은

분기 실적 보고서와 구분하기 어렵다

고 적었습니다.

빠진 게 있었습니다.

Taiwan

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회담장에서

잘못 다루면 충돌(clashes)할 것

이라고 경고한 사실은 중국 측 발표문에 분명히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 문서에는 반박도,

대만관계법

이나

6항 보증

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만 문제를 논의하셨습니까?

트럼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상대방의 강경한 주장에 반박하지 않는 것은 묵인(tacit consent)에 가깝다

고 짚었습니다. CEPA(유럽정책분석센터)도 같은 맥락.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공식적 침묵을 택한 것은 1979년 수교 이래 전례 없는 후퇴라는 평가였습니다.

왜 174단어였을까요. 왜 대만이 빠졌을까요. 답은 워싱턴이 아니라 미국 중서부 주유소 가격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봄의 수치들. CPI 3.3%. 2월 대이란 공습(에픽 퓨리 작전)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브렌트유 배럴당 117달러 돌파, 휘발유 갤런당 5.5달러에서 6달러. 사상 최고치. 57%

대중국 관세까지 겹치면서 미국 가정의 연간 추가 부담이 1,200달러에서 1,500달러. 지지율31%. 갤럽 기준 임기 2년 차 역대 최저치입니다.

중서부 팜벨트(Farm Belt)는 더 급박했습니다.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연간 8,000만 톤)로 돌려버리자 미국 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로 록히드 마틴 전투기 라인과 테슬라 전기차 공장이 멈춰 설 위기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 실렸습니다.

6개월 뒤 11월, 중간선거. 상하원 다수당을 잃으면 남은 임기 2년은 식물 행정부가 됩니다. 보잉기 몇 대, 대두 몇 만 톤, 관세 유예 몇 개월. 그 숫자들이 174단어 안에 빼곡히 들어갔습니다. 대만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만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중국 시장을 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흥정의 칩(bargaining chip)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140억 달러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하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대가로 받아 온 것들. 이란에 대한 중국의 막후 압박을 통한 호르무즈 개방, 대두 2,500만 톤 구매 재개, 보잉기 200대 주문, 12개월간 관세 및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모두 11월 선거 전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좌표가 여기서 겹칩니다. 5월 13일, 회담 하루 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핑이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시간 간격으로 접견한 뒤,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마지막 실무협상을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 이후 한국이 미중 사전 협의 무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립외교원 이슈브리프는 이 현상을

한국 외교의 자산이자 부담

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측이 서울을 '편리한 중간 지대'로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

전략적 자율성

,

사안별 연대

를 내걸고 미국에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통화스와프를, 중국에는 실질 협력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줄타기 외교의 한계

를, 장동혁 의원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는 입장을 냈습니다.

174단어 안에 대만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타이베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 의지를 공식 문서에서 지운 순간,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도 같은 의문 앞에 놓입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용 가능성, 한국의 자동 개입 여부. 이런 질문들이 174단어의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발표문은 달랐습니다. 분량부터 달랐습니다. 신화통신과 외교부는 A4 여러 장 분량의 장문을 쏟아냈습니다. 상품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역사였고, 경고였습니다.

핵심 문장.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中美建设性战略关系,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시진핑이 새로 만든 조어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로 불렀습니다. 시진핑은 뒤집었습니다.

합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合利, 斗俱).

CCTV는 이 개념 아래 4개 기둥을 보도했습니다. 적극적 안정, 양성 안정, 상태 안정, 영구 안정. 수사처럼 들리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관세, 반도체 제재, 대만 문제로 이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도구 4개를 하나씩 묶어 놓은 방어벽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표현은 칼날 같았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첫 번째 사안이며, 잘못 다루면 두 나라는 충돌하고 대항하게 될 것이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水火不容).

인민일보 5월 15일 사설은 이 표현을 1면에 배치하며

시진핑 주석이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재확인시켰다

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을 인용하며

이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 길을 만들어야 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서양 정치학의 개념을 끌어다가 자신이 그 해결자임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한다.

Al Jazeera는 5,000년 문명을 자처하는 중화(中)가 250년 된 나라에 건네는 이 축하가 문명적 서열의 암시라고 해석했습니다. NHK 워싱턴 특파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진핑은 무역 협상가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로서 트럼프 앞에 앉았다.

174단어와 장문 발표문을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가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상품을 샀고, 중국은 서사를 샀습니다. 상품은 소비되면 사라지지만, 서사는 남아서 다음 협상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Foreign Policy는 이를

내러티브 전쟁에서 중국이 완승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11월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진핑은 2027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부 권력 기반과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민감한 구간.

중국도 아팠습니다. 부동산 연쇄 붕괴, 청년 실업 급등, 디커플링에 따른 수출 둔화. 내권(卷)의 압박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국산화와 쌍순환(循) 전략 완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고, 생태계가 자립할 때까지 외부 간섭을 차단할 환경이 절실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조급함을 썼습니다. 대두를 조금 사주고(비용이 거의 없는 양보), 희토류 규제를 12개월간 풀어주면서 선거용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대가로 받아낸 것. 대만 140억 달러 무기 판매 지연, 100% 관세 공격 유예,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라는 방어벽. 이 방어벽은 미국이 압박을 재개할 때마다

당신들이 동의한 '안정'을 깨는 것

이라고 되돌려 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동시에 회담은 국내 선전의 무대였습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17명의 자본가를 거느리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CCTV가 반복 재생했습니다. 21발 예포, 천단(天) 제단 앞에 나란히 선 두 정상. 2027년 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의 통치 정당성이 이 무대 위에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화통신이 반복한 서사,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안정시키는 대국이다

가 내부 결속의 정착제였습니다.

트럼프에게 6개월이 전부였다면, 시진핑에게는 12개월이 기획였습니다. 희토류 밸브를 풀어 놓되 그 사이에 AI 반도체 국산화를 밀어붙이고, 군사력을 정비하고, 쌍순환의 기초를 까는 것. 12개월 뒤 밸브가 다시 잠기는 시점은 미국 중간선거 직후, 워싱턴 정치가 힘을 잃는 순간과 겹칩니다.

국립외교원 이슈브리프는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트럼프는 6개월짜리 진통제를 샀고, 시진핑은 12개월짜리 시간을 샀다. 진통제는 효과가 사라지고, 시간은 축적된다.

한국은 이 두 시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12개월 관세 유예가 수출에 숨통이었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이 완화되면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는 줄어듭니다. 희토류 유예는 자동차, 전자 산업에 산소를 공급했지만, 12개월 뒤 밸브가 닫히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의 양극재 조달 경로가 다시 막힙니다.

두 통고문 사이에 진실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두 지도자 모두 자기 나라의 시계를 멈추기 위해 상대방의 시간을 빌려 썼습니다. 트럼프는 11월까지, 시진핑은 2027년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양보하고, 필요한 것만 통고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174단어에는 대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발표문에는 투키디데스와 5,000년 문명이 들어갔습니다.

진통제의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과, 벌어 놓은 시간이 다 소진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두 시점은 2027년 상반기 어딘가에서 교차합니다. 그때 워싱턴과 베이징은 각각 어떤 통고문을 쓰게 될까요. 서울 청와대에서 베센트와 허리핑을 한 시간 간격으로 만나던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교차점이 올 때 어떤 문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두 강대국의 통고문 사이, 한국의 이름이 적혀야 할 빈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전 장

제11장 휴전인가 승리인가: 유예된 12개월의 시한폭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제13장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시험대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맷음말: 두 거인의 위험한 춤은 계속된다

도입 장면: 2026년 5월 14일 인민대회당 국연,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9월 24일 백악관 답방을 공개 초청하는 순간

인용 출처: A. 백악관 통고문(174단어), 트럼프 국연 발언(트루스 소설 전채) B. 중국 외교부 장문 readout, 신화통신, CCTV C. Foreign Policy,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CNN, Bloomberg D. 국립외교원, 박원곤(이화여대), 세종연구소, 한국 외교부 E. NHK, BBC, FT, Bloomberg Asia

인용 출처 목록

2026년 5월 14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연장. 상들리에 아래로 마오타이주 잔이 부딪치는 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팀 쿡 옆자리에서 뭔가를 속삭이고, 젠슨 황은 테이블 끝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밀실 협상에서 쌓인 긴장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최고급 요리와 의례적인 건배사 아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사를 읽는 목소리는 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한 문장이 17명의 미국 최고 자본가들과 전 세계 외교가를 관통했습니다.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9월 24일. 날짜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젠가

도

올가을쯤

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평리위안 여사에게 백악관 국빈 방문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공개 초청했습니다. 그는

상호 무역이 그러하듯 이번 방문도 상호 호혜적(Reciprocal)일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의 언어였습니다.

시진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읽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이 초청이 즉흥적인 쇼맨십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오늘 밤, 오는 9월 24일 시 주석과 평리위안 여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라고 말한 뒤,

우리의 상호 무역(Reciprocal trade)이 그러하듯 이번 방문도 상호 호혜적(Reciprocal)일 것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보여줄 테니 시 주석께서도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된 것치고는 놀라울 만큼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시계가 다릅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6개월짜리이고, 시진핑의 시계는 5년에서 10년짜리입니다. 이 비대칭이 9월 24일이라는 날짜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2기 남은 임기의 국정 동력 전체가 걸린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 미국의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2월에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7달러를 찍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이 치솟으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3% 올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본인이 부과한 57% 대중국 관세의 부메랑까지 겹쳤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31%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CNN과 Bloomberg의 분석가들이 지적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보다 훨씬 더 짧고 다급한 정치적 시계(Shorter political clock) 위에서 달리고 있

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11월 선거 직전에 보여줄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얻어낸 5B, 보잉 200대, 대두 연간 2,500만 톤, 펜타닐 단속, 상호 관세 인하, 호르무즈 해협 중재. 이것들은 약속이었지 이행은 아니었습니다. 의향서에 서명한 것이지 계약금이 입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가 중국을 굴복시켰다

고 선전하려면, 이 약속들이 선거 전까지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거대한 시각적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9월 24일의 백악관 초청은 바로 그 무대 장치였습니다.

시진핑이 백악관 레드카펫을 밟는 장면. CNN 카메라가 잡아내는 두 정상의 악수. 그것 자체가 트럼프의 외교적, 경제적 치적을 완성해 주는 이미지가 됩니다. 시진핑은 의도했든 아니든 11월 선거 직전의

최고위급 선거 유세 지원군(Campaign Surrogate)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시진핑의 시야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5차 5개년 계획 (2026~2030)의 완수. 2027년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체제 안정. 딥시크 (DeepSeek)가 보여주었듯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돌파하며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쥐고 있는 손. 시진핑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9월 24일이라는 날짜를 꺼낸 순간, 그는

나는 9월에 당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자기 패를 스스로 까버린 셈이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중난하이(中南海)로 넘어갔습니다.

Foreign Policy는 이 상황을

미국의 외교 정책이 시진핑의 워싱턴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질이 되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9월 24일이 기정사실이 되는 순간, 트럼프 행정부는 그날까지 시진핑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굵직한 대외 강경책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대만 무기 판매, 새로운 징벌적 관세, 추가 AI 칩 규제. 9월에 시진핑이 백악관에 오려면 이 모든 것이 동결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궤도에서 벗어나 베이징을 자극할 경우, 시진핑은 성명 한 장으로 답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약속을 파기했으므로 방미를 취소한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얻어냈다고 자랑한 12개월짜리 관세 휴전과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즉각 파기됩니다.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농산물 수출 길이 다시 막히며,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춰 섭니다. 트럼프는 선거 직전에 이런 파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덩어리에서 제일 뼈아픈 희생양이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14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채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2025년 12월의 110억 달러어치 승인에 이은 핵심 방어 자산들로 구성된 이 서류에 트럼프는 잉크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회담 밀실에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台分裂台海和平水火不容).

역대 최고 수위의 경고였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충돌과 대항(Clashes and Conflicts)

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174단어짜리 백악관 통고문(Readout)에서

대만(Taiwan)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문 readout에는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이 상세히 담겼는데, 미국 측 174단어에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침묵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대만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대만이 시진핑과 트럼프의 협상 메뉴(Menu)에 오르는 겁니다.

BBC가 보도한 이 발언은 공포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백악관 회담이 끝날 때까지 대만은 매일 해협 중앙선을 넘나드는 중국 전투기의 굉음 속에서 미국의 방치 아래 고립된 채 숨을 죽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볼모(Hostage). 이 단어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상황의 정확한 묘사가 된 겁니다.

CEPA(유럽정책분석센터)는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용 승리를 위해 대만이라는 안보 자산을 동결시킨 결과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전체의 억지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이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9월 24일의 백악관 답방은 경제적 거래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베이징 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선포한 새로운 패권의 틀,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中美建性略定系,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가 미국 심장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준(Ratification)받는 의식이 됩니다.

이 명칭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장문 통고문은 미국을 세계 유일의 지도 국가가 아닌, 중국과 동등하게 세계 질서를 양분하여 책임지는

파트너

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진핑은 천단(天壇) 공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그 무대 위에서

중미 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은 떠오르고 서양은 쇠퇴한다는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신화통신과 CCTV는 이 장면을 반복 송출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안정(Stability)

이라는 단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이나 기술 제재(디커플링)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 대만과 AI 패권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방패.

안정

이라는 이름의 현상 유지 요구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이번 베이징 회담의 중국 측 readout에서였습니다. 미국 측 174단어짜리 readout에는 이 표현이 없었습니다. 같은 회담을 두고 양쪽이 내놓은 문서의 비대칭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새 질서의 이름을 붙이고, 미국은 그 이름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거부 아니었습니다. 거부했다면 반박문이 나왔을 겁니다.

미국이 베이징에서 174단어의 침묵을 택한 것을 넘어서, 9월 워싱턴에서도 이 서사에 순응할 것인가. 트럼프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시진핑을 앉혀두고 농산물 계약서와 펜타닐 단속 영수증만 흔들며 환호한다면, 그것은 미국 대통령 스스로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라는 중국 주도의 신(新) 질서를 수용했음을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선언하는 꼴이 됩니다.

제1도련선 위의 공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의 집무실이 제일 먼저 긴장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베이징으로 향하기 직전 다카이치 수상과 만나 아시아 동맹의 단결을 논의했지만, 정작 트럼프는 상업적 거래를 위해 동맹의 이익을 언제든 중국에 넘길 수 있음을 베이징 국연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NHK는 일본 보수 우파 진영이 9월 24일 일정을

재앙의 날짜

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정권 역시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시기 분석에서, 대만 유사시 한미 동맹의 자동 개입 여부와 주한미군 전용 가능성이 한국 안보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140억 달러 무기 판매가 동결된 상태에서 대만이 고립되면, 그 다음 고립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지도를 펼치면 보입니다.

5월 13일, 베이징 회담 전날.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시간 간격으로 접견한 뒤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마지막 실무 협상을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에서 미중 정상은 처음 만난 이후, 한국이 미중 사전 협의 무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외교 자산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무대

로 쓰고 있는 측면을 국립외교원의 내부 분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회담 기간 중 한반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CCTV 보도에 대해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한다

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방중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중이 북한 문제에 공조하면 한반도 전략 공간이 좁아지고, 미중이 갈등하면 북한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이중의 압력이 9월까지 계속됩니다.

12개월짜리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은 베이징에서 체결된 관세 및 희토류 통제 유예 조치의 시계가 2027년 5월에 멈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개 희토류 원소 중 12개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폐한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로 멈춰둔 것뿐입니다. 미국이 자체 공급망(Mine-to-magnet)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트럼프는 겨우 1년의 시간을 얻은 것에 환호했습니다. Bloomberg는 이를

1년짜리 진통제

라고 불렀습니다. FT는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9월 24일 백악관에 도착할 시진핑은 빈손이 아닐 겁니다. 그의 청구서가 보입니다.

이란에 행사했던 조용한 압박,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보장을 무기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 준 대가. 그 청구서 맨 위에는 엔비디아(Nvidia)의 차세대 AI 칩 H200에 대한 전면적 제재 철폐가 적혀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승인만 해놓고 중국 당국이 고의로 수입을 보류하고 있는 그 칩입니다. 화웨이와 딥시크(DeepSeek)로 대표되는 중국 독자 기술 생태계에 대한 미국의 용인 요구도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140억 달러 대만 무기 판매안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압박.

트럼프가 중간선거 승리에 취해 9월 24일 백악관에서 이 요구들을 수용해 버리면, 그것은 미국 안보의 아킬레스건을 영구적으로 중국에 넘겨주는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매파,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반발하여 거부한다면, 시진핑은 미소를 거두고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10월이나 11월 초에 희토류 수출 통제 밸브를 다시 잠가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시와 첨단 산업이 패닉에 빠지고 선거판이 흔들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진핑에게는 나쁘지 않은 판입니다.

한국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희토류 12개월 유예는 한국 자동차, 전자 산업에 숨통이 트인 조치이긴 합니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의 양극재 조달 경로가 12개월간 안정됩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일부 완화도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한국이 누리던

대체 수요

는 줄어듭니다.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면 메모리, 장비, 배터리, AI 공급망 전체에 파급이 옵니다. 모든 합의 항목에 한국 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공급망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면 중국 시장 접근이 다시 열리지만, 동시에 중국 자체 반도체 생태계가 성장하

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가 좁아지는 양면이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수요가 미국 쪽에서 오는지 중국 쪽에서 오는지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달라집니다. 9월 24일 백악관에서 칩 규제 관련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 삼성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다렌 공장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12개월 뒤, 그러니까 2027년 5월에 유예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지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베이징에도 워싱턴에도 서울에도 없습니다.

2026년 5월 14일 밤, 인민대회당 국연장에서 트럼프의 초청을 들은 시진핑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CCTV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시진핑은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9월 24일 워싱턴에 나타날지, 나타나다면 무엇을 들고 올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하나뿐입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멈출 수 없이 11월을 향해 달리고 있고, 시진핑의 시계는 아직 태업을 감지도 않았다는 사실.

140억 달러어치 무기는 여전히 트럼프의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대만 해협에서는 오늘도 중국 전투기가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A. 미국 1차 자료 백악관 통고문(Readout), 174단어, 2026년 5월 14일 트럼프 국연 발언, 트루스 소셜 전채 및 백악관 공식 기록

B. 중국 1차 자료 중국 외교부 장문 readout(영문, 중문), 2026년 5월 14일 신화통신(Xinhua), 시진핑 발언 전문 CCTV, 국연 현장 보도

C. 제3국 분석 Foreign Policy, 미국 외교정책의 인질화 분석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제1도련선 억지력 약화 분석 CNN, Bloomberg,

Shorter political clock

분석

D. 한국 분석 국립외교원, 미중 사전 협의 무대로서의 한국 내부 분석 박원곤(이화여대), 대만 유사시 한미 동맹 자동 개입 변수 분석 세종연구소, 대만 거래화에 따른 한미 동맹 신뢰 기반 경고 한국 외교부, 한반도 문제 언급 관련 입장(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

)

E. 일본/EU/기타 NHK, 일본 보수 우파의 9월 24일 일정 반응 BBC, 대만 고위 관리 발언(

협상 메뉴에 오르는 것

) 보도 FT,

구조적 취약성

분석 Bloomberg Asia,

1년짜리 진통제

평가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다음 장

맺음말: 두 거인의 위험한 춤은 계속된다

맺음말 두 거인의 위험한 춤은 계속된다

맺음말: 두 거인의 위험한 춤은 계속된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도입 장면: 1972년 닉슨-마오쩌둥 악수 사진과 2026년 트럼프-시진핑 악수 사진이 나란히 걸린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복도

인용 출처: A. 백악관 발표문, 미 국무부 / B. 중국 외교부, 신화통신 / C. Foreign Policy, CEPA, Lowy Institute / D.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박원곤 / E. BBC, FT, Bloomberg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2층 복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왼쪽은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이 마오쩌둥의 서재에서 악수하는 흑백 사진. 오른쪽은 2026년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가 인민대회당 붉은 카펫 위에서 시진핑과 악수하는 컬러 사진. 54년의 시차를 두고 찍힌 두 장면은 기이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미소, 양복, 악수의 각도까지. 그런데 사진 아래 붙은 설명문의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1972년의 캡션은

Opening(개방)

이라고 적혀 있고, 2026년의 캡션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빈칸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베이징에서 벌어진 48시간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하는지, 워싱턴도 베이징도 서울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72년 닉슨의 방중은

해빙

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냉전의 벽에 최초의 균열이 간 사건이었으니까요. 2026년 트럼프의 방중은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해빙도 아니고, 결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도 아닙니다. 이 책이 13개 장에 걸쳐 해부한 48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 없는 시간

이었습니다.

관리된 경쟁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트랩을 오르며

10점 만점에 12점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활주로를 이탈하기도 전에, 그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는

역사적인 승리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7,000마일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신화통신이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라는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인민일보 1면에는 시진핑이 트럼프의 어깨를 잡고 천단공원 회랑을 걷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두 수도의 선전 기계가 동시에 가동됐지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어느 쪽도 믿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회담 직후 1.2% 올랐다가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Bloomberg는 이 흐름을

relief rally followed by reality check

라고 요약했고, 그 표현이 48시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안도감이 먼저 왔고, 현실 확인이 뒤따랐습니다.

합의 내역을 펼쳐놓으면 인상적인 영수증처럼 보입니다. 보잉 여객기 200대 구매, 대두 2,500만 톤 수입 재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촉구, 펜타닐 전구체 차단 협력, 12개월간의 관세 및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제9장에서 다뤘듯 시카고 보잉 본사 회의실에서는 이 영수증을 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200대는 시장 기대치 500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보잉 주가는 합의 발표 당일 3.7% 하락했습니다. 대두 수입은 라이선스만 발급됐을 뿐 선적 일정은 미정이었습니다. 제8장의 호르무즈 개방 합의는 중국이 이란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Foreign Policy의 5월 17일자 분석은

Beijing's leverage over Tehran is real but narrow

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수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은 겁니다.

결정적 물음표는 12개월이라는 숫자에 붙어 있습니다. 제11장에서 분석한 대로, 관세와 희토류 유예 만료일이 2027년 5월이라는 사실, 그것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CEPA의 분석대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선거까지 쓸 수 있는 진통제를 건네면서 유효기간을 자기 손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12개월이 지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거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거래할 때의 조건이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12개월 동안 기술 자립을 진전시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은 12개월 동안 희토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할 공산이 큼니다. 시간은 베이징 편입니다.

세종연구소 박원곤 교수는 이 구조를

비대칭적 시간 거래

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 쓸 수 있는 3개월짜리 헤드라인을 샀고, 시진핑은 제 15차 5개년 계획의 기술 자립 일정표에 필요한 12개월을 벌었습니다. 같은 거래에서 한쪽은 분기 단위로, 다른 쪽은 연 단위로 시간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대칭이 2026년 베이징 회담의 본질입니다. 제12장에서 비교한 양국 통고문(readout)의 분량 차이가 이것을 상징합니다. 미국 174단

어, 경제적 이익 강조. 중국 장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선포. 짧은 쪽이 급했고, 긴 쪽이 여유로웠습니다.

봉합되지 않은 활화산

이 책 1장부터 13장까지를 관통하는 두 개의 단층선이 있습니다. 대만과 인공지능. 회담장에서 이 둘은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회담 석상에서

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잘못 다루면 충돌(Clashes)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 발언이 원문 그대로 실렸습니다. 반면 백악관의 174 단어짜리 공식 통고문(readout)에는

대만

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중국과의 정상회담 발표문 중 전례 없이 짧은 분량이었
고, 전례 없이 많은 것을 생략한 문서였습니다. 제7장에서 추적한 바대로, 시진핑이

수화불용(水火不容),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

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현상 유지의 거부이자 무력 통일 명분의 공식화였습니다.

14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안은 백악관 서랍 속에 무기한 보류돼 있습니
다. 희토류 유예와 관세 완화를 연장받으려면 대만 카드를 꺼내면 안 되니까요. FT는 이것을

Taiwan as a bargaining chip, not a commitment

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의 상인적 기질이 대만을 협상 메뉴에 올린 겁니다. 제2장에서 분석한 중
국의 3T(Taiwan, Tariffs, Technology) 방어선 중 대만이 첫 번째에 놓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시진핑에게 대만은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테이블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뇌관입니다.

트럼프의 침묵이 대만 해협의 지각판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대만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
을 생산하는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이자,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자물쇠입니다. 펜타곤과 미 의회 양당은 트럼프의 거래와 무관하게 대만 관련 법안을 계속 발
의하고 있습니다. 제13장에서 다룬 9월 24일 시진핑의 백악관 답방,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의
시간대. 이 두 시점에서 활화산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Lowy Institute는

not if, but when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좌표 5).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용 가능성, 한미 동맹 자동 발동 여
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충격. 국립외교원의 2026년 4월 보고서는

대만 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 경로가 최소 세 개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자율성

(좌표 2)이 대만 위기 앞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아직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제4장에서 묘사한 천안문 광장의 21발 예포가 울리던 순간, 서울 외교부 상황실에서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포 소리가 환영의 의례인지, 경고의 서막인지를 판단하면서.

평행 우주로 갈라지는 기술 패권

두 번째 단층선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제10장에서 서술한 대로, 이 영역에서 양국은 합의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제6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태우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17인 CEO 군단 중 젠슨 황이 마지막으로 트랩을 올랐습니다. 팀 쿡(애플), 일론 머스크(테슬라)보다 뒤에. 그 순서가 AI 칩 수출 규제 완화의 신호탄처럼 읽혔습니다. 그런데 빗장을 건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시진핑은 화웨이 국산 칩 구매를 기업들에게 사실상 강제하고, 독자적 기술 생태계(Tech Stack)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딥시크(DeepSeek)의 사례가 이 결정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600만 달러. 오픈AI가 수십억 달러를 쓰며 만든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이 금액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하드웨어 봉쇄를 알고리즘 효율로 우회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밀수된 구형 칩과 독자 알고리즘 최적화의 조합이 하드웨어 격차를 메웠습니다. 제3장에서 다룬 희토류 무기화가 미국의

칩 봉쇄

에 대한 중국의 물리적 보복이었다면, 딥시크는 기술적 보복이었습니다.

BBC는 이 상황을

two tech superpowers building parallel universes

라고 묘사했습니다. 평행 우주.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 H200 칩과 오픈AI 생태계가 표준이고, 중국 쪽에서는 화웨이 칩과 딥시크, Qwen, 더우바오(Doubao)가 표준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경유하는 블랙 칩(Black Chip) 네트워크가 두 우주 사이의 밀수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베이징 회담에서 나온

AI 안전 및 거버넌스 대화

는 구속력 없는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Foreign Policy의 Scott Kennedy가

a dialogue about having a dialogue

라고 평가한 게 틀리지 않았습니

기술 패권은 거래가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군사력의 우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양쪽 모두 타협 대신 가속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좌표 3)은 이 두 평행 우주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칩을 공급하는 이중 노출(dual exposure) 상태입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의 양극재 조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급망도 두 우주 어디에 속할지 강요받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우주에 동시에 발을 걸친 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는 12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자와 설계자

이 책 전체를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2026년 베이징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48시간의 거래 구조를 뜯어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청원자(Petitioner)였고 시진핑은 설계자(Architect)였습니다.

트럼프에게는 급한 게 있었습니다. 제1장의 이란 전쟁 수렁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 11월 중간선거까지 남은 6개월, 동맹국들의 피로감. 그는 베이징에 와서 대두, 보잉, 호르무즈라는 세 장의 영수증을 받아 갔습니다. 선거판에서 쓸 수 있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대가로 대만을 침묵에 부치고, 희토류 유예의 시한을 시진핑이 설정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제5장에서 묘사한 천단공원 산책 장면이 이 역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의 안내를 따라 회랑을 걸었습니다. 길을 정한 건 시진핑이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황제의 공간에서 동선을 짜는 것은 주인의 특권이었고, 트럼프는 손님이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급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12개월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기술 자립 로드맵을 실행하고, 화웨이 중심 반도체 생태계를 굳히고, 동남아와 중동의 디지털 인프라에 영향력을 넓힙니다. 100% 관세 위협은 12개월간 동결됐고, 희토류 수출 통제의 고삐는 여전히 베이징이 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구적으로 양보하지 않은 채,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한부 리스로 제공한 겁니다.

Lowy Institute의 5월 분석 보고서가 이 역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Trump bought headlines. Xi bought time.

헤드라인을 산 사람과 시간을 산 사람. 다음 거래에서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지는 자명합니다.

한국은 이 거래의 사전 협의 무대였습니다(좌표 1). 5월 13일,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핑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시간 간격으로 접견한 뒤,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마지막 실무 협상을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부산 APEC 이후 한국이 미중 사전 접촉 무대로 자리 잡은 건 외교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무대

로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대는 조명을 받지만 각본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와

사안별 연대

(좌표 2)가 무대 위의 배우가 될 수 있는지, 무대 장치에 머무를 것인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국이 미중 모두에게 다른 카드를 꺼내는 건 줄타기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그 비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북한 변수(좌표 4)도 이 구도에 끼어 있습니다.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CCTV 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한다

고 밝혔습니다. 미중이 공조하면 한반도 전략 공간이 좁아지고, 갈등하면 북한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의 선택지는 줄어들습니다.

한국 산업(좌표 3)의 시간표는 12개월짜리 시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자동차와 전자 산업은 희토류 공급이라는 숨통을 얻었지만, 그 숨통의 길이를 결정한 건 베이징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의 양극재 조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급망. 이 모든 것의 미래가 2027년 5월 이후의 미중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냉전의 윤곽

12개월의 유예가 만료되는 2027년 5월, 테이블 위에는 지금보다 많은 청구서가 쌓여 있을 겁니다. 관세, 희토류, 반도체 수출 통제, 대만 무기 판매, 호르무즈 해협, AI 거버넌스. 한꺼번에 제시되는 순간

관리된 경쟁

이라는 포장지는 찢어집니다.

CEPA는 이 시나리오를

Techno-Cold War

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술 냉전. 미소 냉전이 핵무기를 축으로 세계를 둘로 나눴다면, 기술 냉전은 반도체와 AI를 축으로 세계를 나눕니다. 핵 냉전에는 상호확증파괴(MAD)라는 억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도 당신을 죽인다. 그 공포의 균형이 양측을 붙잡았습니다. 기술 냉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가 아직 없습니다. AI 군비 경쟁에서 선제 우위를 점하면 상대방의 방어 체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 시대의 공포는

둘 다 죽는다

는 확실성에서 왔습니다. 기술 냉전의 공포는

한쪽만 죽을 수 있다

는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

이 책은 13개 장에 걸쳐 48시간을 해부했습니다. 제1장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에서 시작해, 제2장 5B와 3T의 동상이몽, 제3장 희토류와 관세 폭탄, 제4장의 21발 예포, 제5장 천단공원의 상징, 제6장 쟌슨 황의 에어포스원 탑승, 제7장 대만이라는 뇌관, 제8장 호르무즈 밀약, 제9장 보잉 200대의 진실, 제10장 AI 평행 우주, 제11장 12개월 시한폭탄, 제12장 양국 통고문의 비대칭, 제13장 시진핑 답방이라는 시험대까지. 영수증을 뒤집고, 발표문의 단어를 따지고, 무대 장치의 정치학을 해독하고, 양국의 약점과 셈법을 드러냈습니다.

그 끝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회담은 해결이 아니라 유예였습니다. 평화 조약(Treaty)이 아니라 시한부 휴전(Truce)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24일, 시진핑이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대만 무기 판매안이 서랍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갈까요. 중국은 희토류 유예를 연장하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국은 그 자리에 불러갈까요, 아니면 불리지 않는 게 더 나쁜 일일까요.

박원곤 교수의 말이 컷가에 남습니다.

이번 회담의 진짜 결과는 9월에 나온다. 5월의 합의문이 아니라 9월의 이행 여부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6년 5월 15일 저녁, 인민대회당을 빠져나온 트럼프의 차량 행렬이 베이징 창안제(장안가)를 지나갔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차량이 지나간 뒤 국기는 철거됐습니다.

12개월 뒤, 그 자리에 다시 국기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